

연세경영 2010학년도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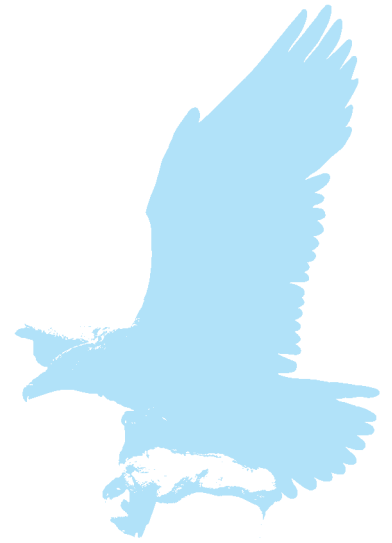
YONSEI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국내 명문을 넘어
세계의 명문으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YONSEI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CONTENTS



- Dean's Message**
연세경영 최초의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며
- Vision & Mission**
- 06 Student 학부**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서로의 경쟁력을 키워나간다
- 07 Student 석박사**
경영학 연구를 이어갈 맨파워를 구축하다
- 08 Student MBA**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인재 풀을 구성하다
- 10 Program 학부**
사고의 깊이를 더한 리더십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주목하라
- 12 Program MBA**
국제화 전략에 부합하는 전문 커리큘럼을 익히다
- 14 Program 석박사**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대해 분석하는 경영학자를 양성한다
- 15 Program AMP**
최고경영자를 위한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만들다
- 16 Program 상남경영원**
경영자 교육 전범을 이루며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다
- 18 Globalization**
연세경영, 세계로 비상하다
- 20 Faculty**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달성할 7인의 우수 교수진을 확보하다
- 22 Research**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으로 세계적 수준의 논문을 발표하다
- 24 Administration**
전문 행정 시스템 구축으로 대외 경쟁력을 높이다
- 25 연세정신**
연세정신은 '나눔'입니다
- 26 장학금 현황**
재학생 모두가 장학생이 되는 그날까지!
- 27 Blue Butterfly**
작은 정성을 모아 큰 뜻을 이루다
- 28 장학금 기부 스토리**
마음을 담은 참된 기부를 실천하다 - 이두원, 상학 58
- 30 장학금 기부 스토리**
모교 사랑을 전하는 세경장학금 - 최희규, 경영 83
- 31 장학생 스토리**
빛을 안고 떠납니다 - 홍형진, 경영 06
- 32 장학생 스토리**
선배님들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 - 황철상, 경영 02
- 33 장학생 스토리**
나눔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다 - 김지영, 경영 09
- 34 경영관 건축**
글로벌 경쟁을 위한 경영관 설계
- 38 경영관 기금 조성 현황**
나눔이 연세경영을 바꿉니다
- 40 경영관 공간 구성**
신축될 경영관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41 건축 기금 기부 스토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마음으로 이끄는 기부 활동
- 김승제, 경영전문대학원 MBA 84기/AMP 50기
- 42 건축 기금 기부 스토리**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모교사랑을 실천하다
- 이종화, 경영전문대학원 AMP 53기
- 43 건축 기금 기부 스토리**
'Young 81', 경영 81 동기회의 맨파워를 느끼다 - 경영 81 동기회
- 44 행사 스케치** 참된 기부의 미학을 나누다
- 45 행사 스케치** 핫도그에 담은 연세경영 응원메시지
- 46 행사 스케치** 사랑한다, 연세경영!
- 48 행사 스케치** 졸업은 또 다른 의미의 출발 새로운 졸업식 문화 창출
- 50 행사 스케치** 연세경영 내리사랑 캠페인 Class Gift
- 53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 54 Operational Highlights**
- 56 연세경영 기부자 명단**
- 62 연세경영 교수진**

연세경영 최초의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며

대학의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는 지난 한 해 동안 일어난 중요한 활동에 관한 정보를 대학의 학내외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종합적 보고서입니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YSB: Yonsei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이 한국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대학의 연차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하는 이유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추진하고 있는 활동과 변화의 내용을 학내외 구성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YSB가 연차보고서를 통해 전달하는 정보가 교수, 직원, 학생, 그리고 동문과 학부모에게 YSB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YSB에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3년 경영학과가 경영대학으로 독립하였고, 그 후 경영대학 학장이 경영대학원 원장을 겸임하면서 형식적으로는 별개인 두 학사 단위가 실제로는 YSB라는 큰 규모의 단일 행정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2006년에는 경영대학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아 경영전문대학원으로 전환을 한 후, MBA 교육에서 치열한 대학 간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규모의 확대와 경쟁의 격화에 대응하여 YSB는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YSB가 모색하는 변화의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YSB가 고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YSB는 이를 위하여 'YSB가 문을 닫는다면 과연 사회적 손실이 있겠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YSB는 연상(延商)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5년까지 글로벌 50위권의 경영대학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둘째, 각종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입니다. 학부는 '세계적인 시각을 지닌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리더'의 육성을 위하여 새로운 과목들을 개설하고 CLC(Creative Leadership Curriculum)라 총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MBA 또한 질적 향상을 위해 대대적으로 개편했

며, 그 결과 2010년에는 <Financial Times>가 선정한 세계 100위권 Executive MBA 진입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습니다. 석박사 과정의 장학금을 대폭 확충했으며 박사 졸업생들이 국내외 우수 대학의 교수로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과정(AMP)은 또한 전담교수를 영입하고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YSB가 2015년까지 글로벌 5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2015년까지 전임교수 100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0년 7명의 신입교수를 영입하여 현재 69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행정업무의 개선을 위해 5명의 디렉터(MBA, CLC, AMP, 대외협력, 국제)를 영입하였으며, 새로운 전통의 확립을 위해 다수의 독특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은 두말할 나위 없이 경영관의 신축입니다. 현재 YSB는 교실 부족으로 강의 개설이 크게 제약받고 있으며, 교수 연구실도 부족하여 임시로 상남경영원의 객실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5년간 건축기금을 회사해주신 수많은 동문님들께 건축 지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금년 8월에 착공하여 2013년 6월에 완공될 훌륭한 건물의 신축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동기회별 건축기금 조성 캠페인에 많은 동문님들께서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YSB는 교직원과 학생, 동문 모두가 자긍심을 갖는 학교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YSB의 발전을 후원해주시는 총장님과 대학 본부, 동문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는 YSB 교직원들께도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1년 4월 경영대학장·경영전문대학원장 박 상 용



YONSEI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VISION

세계적 수준의 경영교육·연구기관

YSB, the First & the Best

To become a world class business school based on outstanding research and education

MISSION

CREATIVE LEADERSHIP

탁월한 교육과 선도적 연구를 통해 세계적 시각을 지닌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리더의 육성

To produce influential and pioneering research and to develop creative and ethical business leaders with a global perspective through excellent education

2015년은 연상(延商)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연세경영은 연상(延商)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5년까지 글로벌 50위권의 경영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과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혁신

연세경영의 학부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시각을 지닌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리더'의 육성을 위하여 CLC(Creative Leadership Curriculum)를 운영하여왔으며, 향후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인문학 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험과목을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교환학생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해외 우수 대학과의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MBA 프로그램은 질적 향상을 위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여 파트타임 MBA는 2010년에 <Financial Times>가 선정하는 세계 100위권에 국내 최초로 진입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우수 경영대학원과의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풀타임 MBA 프로그램은 국내외의 우수한 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MBA Director 제도 도입과 더불어 취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2015년 이전에 세계 100위권에 진입할 것입니다. 최고경영자과정(AMP)은 전담 교수제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통해 2015년 이전에 명실상부하게 국내 최고, 그리고 세계 30위권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전

연세경영은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국제 최고 권위 중심의 연구 실적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보상 및 연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적 경영학 연구를 고취하기 위해 해외 석학 및 연구자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하려면 장기적으로 전임교원이 120명 이상 필요합니다. 연세경영은 해외 우수 교수의 유치, 석좌교수의 초빙, 외국인 교수의 임용 등을 통해 2015년까지 전임교원 100명을 확

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위해 수준 높은 박사 과정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박사 과정 지원을 위한 장학금 확충 등을 통해 우수 학생을 모집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로 양성시키는 데 매진할 것입니다.

다양성 확대를 통한 국제화 추구

연세경영은 다양성(diversity)을 증진하기 위해 2015년까지 외국인 교수 비율을 15%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며, Global MBA의 외국인 학생 비율을 50% 이상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영관이 건립되는 2013년부터 우수 외국인 학생을 학부에 적극 유치하여 2015년까지 교환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비율을 전체 학생의 20%로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해외석학 초빙 등을 통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를 구축함은 물론 EQUIS(the European Quality Improvement System) 인증 획득 및 AACSB(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인증 유지 등을 통해 해외 우수 대학 네트워크를 강화해갈 것입니다.

세계적 명문 대학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

국제교류, 취업,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등 관련 전문행정인력을 확충하고, 2015년까지 행정전담 인원 50명을 확보하여 전문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협력 업무의 전문화, 체계화를 통해 동문, 기업 그리고 학부모의 연세경영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나갈 것입니다. 연세경영의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을 위해 신경영관의 건립이 시급한 현안입니다. 연세경영은 신촌캠퍼스의 중심에 친환경적이면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활용한 최첨단 강의 시설이 들어설 신경영관을 2013년 7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서로의 경쟁력을 키워나간다

2011학년 입시에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은 전통적인 인기학과임을 증명하듯 전국 최우수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2010학년도에 진행되었던 수시전형에서 266명 모집에 5,265명이 지원하여 사상 유례없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연경 폭발'이 검색어에 오를 만큼 이슈가 된 2011학년 정시 입시는 7.31 대 1로 상위권 학생들이 촘촘하게 지원하여 우수 학생들이 대거 입학했다.

2011 연세대 정시 인문계 우선 및 일반 선발 수능 합격점수 비교(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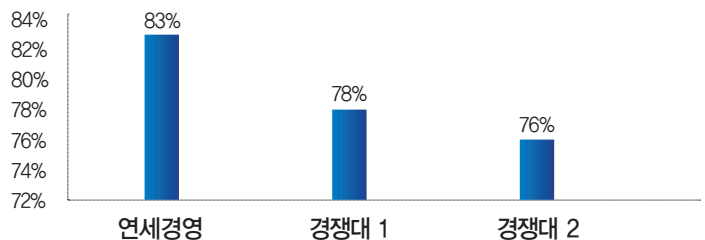
모집단위	정원	경쟁률	우선(70%),컷라인	일반(최초),컷[하위]
○○○	15	3.93	341.6	337.8
경영학과	107	7.31	352.4	352.0
○○○	61	5.51	349.8	348.9

“(연세대)경영학과와 경쟁률이 7.31 대 1로 높았고, 수능 우선선발(70%) 컷라인이 352.4점, 일반선발 컷라인 352.0점, 예비 100번대 350점, 예비 150번대도 349점(상위누적 0.27% 추정) 이상으로 촘촘하게 몰려 있다. 이른바 머리(우선선발 합격선), 몸통(최초 합격선), 꼬리(추가 합격선)가 하나의 큰 몸통으로 연결되어 역대 입시상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집중이 가장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2011.02.16일자)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은 졸업 후에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한다. 전국의 경영학과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자랑할 뿐 아니라 경쟁대학 경영학과와의 편차도 크게 앞선다. 기업체 취업뿐 아니라 행정고시나 공인회계사, 사법고시 등의 전문직 합격률 또한 압도적이다. 2010년도 행정고시에서 연세대 경영대학 학생들이 큰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2010년도 행정고시 재경직 전체 합격생 78명 중 우리 대학은 경영학과 12명, 경제학과 12명 등 총 24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재경직 외에 경영대학은 일반행정직에서 5

명이, 입법고시 재경직에서 1명이 합격하여 연세대학교 전체 합격생 48명 중에서도 1/3에 해당하는 경영대학 학생 18명이 합격의 영예를 누렸다. 또한 2010년도 사법시험에서도 5명의 경영학과 학생이 합격 소식을 전했으며, 공인회계사 시험에는 12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는데 이제까지 누적 합격자는 2,175명으로 국내 대학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또한 2010년도 시험에서 최연소 합격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주인공은 백수연 학생(경영 08)이다.

2010년 취업률 전국 경영학과 1위(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알리미)



COMMENT

다양한 경험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경영학과는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가 아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선택하게 된 것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들 때문이었습니다. CLC(Creative Leadership Curriculum) 프로그램들은 제가 미래의 리더가 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연세우수학생으로서 받고 있는 장학금 혜택은 8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기숙사비 전액 지원 및 기숙사 우선 배정권, 1,500만원의 학습 보조비 지원, 기초 과목 수강 면제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학창시절을 통해 해외 인턴십이나 교환학생 등 다양한 문화 환경을 접해보고 싶고, 연세경영을 통해 이러한 경험과 꿈들이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최승호 (경영 11, 연세우수학생프로그램 장학생)

경영학 연구를 이어갈 맨파워를 구축하다

연세경영의 석박사 과정은 경영학 연구 시장을 선도할 능력을 갖춘 학생 리크루팅을 위해 입학설명회 개최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내외 우수 대학교의 학부 출신 학생들이 대거 입학했다. 특히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박사 출신들이 국내외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박사 졸업생 중 14명이 국내외 대학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이정희 박사는 2010년 일본 간사이 가쿠인 대학교 경영대학 Global MBA 회계 교수로 발탁되었다.

박사 졸업 후 교수 임용 현황

성명	임용연도	대학
오명전 박사	2010	명지대학교(서울) 경영대학 경영학과
곽지영 박사	2010	세명대학교 경영학과
라채원 박사	2010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김성환 박사	2010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이정희 박사	2010	JAPAN 간사이 가쿠인대학교 경영대학
고재민 박사	2010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고윤성 박사	2010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경영대학
김태동 박사	2009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회계학과
여은정 박사	2009	국립강릉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회계학과
우용상 박사	2009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이남령 박사	2009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장금주 박사	2009	서울시립대학교 경성대학 경영학부
전병욱 박사	2009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세무학과
최종원 박사	2009	연세대학교(원주) 정경대학 경영학부

COMMENT

심층적인 연구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다

저는 16년간 해외에 지내면서 영어뿐 아니라 불어와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학부(UIC)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경영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국제학부에서 국제학을 전공하면서 경영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하고, 2011학년도 경영학과 석사과정 정보시스템 전공으로 입학했습니다. 학부 재학 당시 학교 프로그램에 따라 한 학기 동안 미국 조지아텍으로 교환학생으로 파견을 나갔으며, 외교통상부와 현대증권에서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학부를 졸업하면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보다 더 깊은 학문적인 탐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있는 연세대 경영대학 석박사 과정은 해외 대학 못지않게 훌륭한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랜 역사로 쌓아온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과 훌륭한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는 연세경영은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정보시스템 분야 중 'Social network service'에 관심이 많은 데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성공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사례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의 앞날에 연세경영에서 수확한 모든 경험이 큰 밑거름이 되어 사회에 필요한 일원으로 자리 잡길 기원합니다.

전영민(석사 정보시스템 전공, 2011)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인재 풀을 구성하다

연세경영의 MBA 프로그램은 크게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나뉜다. 풀타임인 Global MBA는 동북아 전문가를 꿈꾸며 전세계에서 모인 글로벌 인재들로 구성되어 함께 팀워크를 다지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글로벌 교육 환경을 조성했다. 이들의 국적은 한국을 포함하여 영국,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폴란드, 가나, 이스라엘,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엘살바도르 등 총 17개국으로, 출신 지역 또한 북중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로 매우 다양하다.

특히, 외국인 신입생의 50% 이상이 제출한 경영대학원 입학시험(GMAT) 평균 점수는 650점으로 나타나, 우수한 학생들이 대거 입학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신입생 최고 GMAT 점수는 750점이며, 그 아래 740점 등 높은 점수가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다. 참고로 영국 <Economist>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유럽 Top 20 MBA 프로그램의 GMAT 평균 점수는 648점이었다.

Executive MBA, Corporate MBA, Finance MBA로 구성된 파트타임 프로그램은 각각 최고경영층, 중간관리자, 전문금융인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수요층을 대거 흡수하였다. 2010년 최초로 신설된 Executive MBA는 여덟 가지 테마별 교육 과정으로 리더십과 전략적 사고 훈련에 집중하고 국제적 경험과 안목을

기르기 위한 글로벌 트랙이 그 특징으로, 대기업·중견기업 오너 등으로 구성된 EMBA 1기가 성공적으로 닷을 올렸다. 2011년 Executive MBA 신입생 중 85% 이상이 기업의 부장 및 임원급, 기업 대표들로 선발되었고, Corporate MBA와 Finance MBA는 대기업 소속의 우수한 중간관리자들이 80% 이상 신입생으로 선발되었다.

“연세대 Global MBA 외국인 입학생들은 미국의 카네기멜론(34위), 로체스트(48위), 사우스캐롤라이나(67위), 영국의 옥스퍼드(16위), 케임브리지(21위) 등의 입학허가를 받고도 최종적으로 연세대 Global MBA를 택한 것이다. (...) 실제 외국인 학생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세계 명문 MBA에 진학하고도 남는 실력인 것으로 확인됐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중국사를 전공한 리프 카아렌(26 스웨덴)은 모국어인 스웨덴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로, 향후 동북아시아 비즈니스 전문가가 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가베 엘리(37 가나)는 가나의 농업식품부 공무원으로 지난 2007년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돼 경북대 생명공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세대 Global MBA에 진학했다.”

(파이낸셜뉴스 2010.08.27)

Global MBA 국적분포



한국 경제의 스페셜리스트를 꿈꾸며

이제 우리나라에서 노란 머리, 파란 눈의 외국인을 만나는 것은 더 이상 낯선 광경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한국을 사랑하며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폴란드 출신의 마르타 알리나는 한국을 또 다른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반(半)한국인. 한국에서 제 2의 인생을 펼쳐가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연세대 Global MBA에서 수학 중인 마르타 알리나(Marta Allina). 그녀는 폴란드 바르샤바 출신의 파란 눈의 외국인이다. 아직 우리에게 낯설기만 한 동유럽 국가 폴란드. 그녀는 지구의 반대편에서 어떤 이유로 한국에 정착했을까?

“폴란드 대사관에서 근무하신 아버지를 따라 7살 때부터 4년간 한국에서 성장했습니다. 유년 시절의 추억이 남달랐던 때문인지, 폴란드에 돌아가서도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은 식을 줄 몰랐어요. 한국에 대한, 한국 사람에 대한 따뜻한 기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던 중 한국 KAIST에 교환학생으로 지원하게 되어 다시 한국을 찾게 되었습니다.”

1년 남짓한 짧은 한국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던 마르타는 한국에서 더 많이 공부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던 중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학생 제도를 알게 되었다. 까다로운 전형 과정을 거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청주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과 한국 경제를 공부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다.

“한국에서 장학생으로 지내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해서 폴란드와 한국을 아우르는 경제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많은 학교 중 연세대학교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여느 MBA보다 외국인 학생의 비율이 높고 프로그램 구성도 훌륭하며 교수진의 지도 또한 매우 적

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Global MBA는 커리큘럼이 1년 6개월 과정으로 해외 MBA에 비해 짧은 편. 하지만 그만큼 프로그램 구성이 알차고 타이트해서 좀 더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된다. 이번 여름에 인턴십을 시작할 예정인데,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학문을 실제 사회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연세 MBA에서 배운 많은 지식을 한국 사회에 긍정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Korea Specialist’가 되고 싶다는 그녀의 꿈을 열렬히 응원하고 싶다.



마르타 알리나(Global MBA 2010)

사과의 깊이를 더한 리더십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주목하라

연세경영의 학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다양성 측면에서 다른 경영대학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경영학도의 사과의 깊이를 더하는 인문학 프로그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적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아말로 연세경영의 초석을 다지는 버팀목이다.

경영학도의 사과의 깊이를 더해주는 인문학 프로그램

연세경영은 창의적인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해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학, 음악 등의 예술과의 접목을 통해 인문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과의 깊이를 더하고, 단순한 경영학도가 아닌 크리에이티브한 마인드를 지닌 리더를 배출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2010학년도에 시작한 연세 리드 프로그램(Read to Explore the Author's in-Depth story)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과 교보문고가 독서를 통한 창의적 리더 양성을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이는 취업이나 자기계발서 위주의 독서 대신, 원전이나 고전을 읽는 올바른 책 읽기를 통해 학생들이 인문학적 통찰력과 창의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연세 리드 100', '연세 리드 세미나', '연세 리드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학년도에는 조정래 작가와 이명옥 사바나미술관 관장을 초청하여 '허수아비 춤', '그림 읽는 CEO' 저자 특강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세경영은 연주가와 음악 해설가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추계예술대학교 김용배 교수(피아노 전공)를 초청하여, '역사와 음악', '오페라의 세계', '19세기 낭만주의와 20세기 음악의 도래' 등 고전음악 특강도 실시했다. 연세경영은 인문학의 가치를 중시하는 경영학의 최근 학풍을 커리큘럼에 반영하여, '인간과 생명'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학문의 관점에서 접근한 '위대한 유산 I: 생명과 인간'을 정규 교양과목으로 개발하였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적 리더 의식 함양

연세경영은 경영 현장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경영 패러다임에 맞추어 전공 지식을 경영 현장에 실제 적용하는 YMCP, YCCP 등의 경영자문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010학년도에 신규 개설된 YMCP(Yonsei Microfinance

Consulting Project)는 '마이크로파이낸스와 소사업경영' 과목의 일환으로, 미소금융중앙재단과 손잡고 미소금융 수혜 영세업체에서 봉사와 컨설팅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다. 지역,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나눔을 널리 확산하고 미소금융사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영대학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YCCP(Yonsei Community Consulting Project)는 학교-동문-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경영컨설팅과 컨설턴트의 세계'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신촌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해봄으로써, 연세대학교가 추구하는 'Servant Leadership'의 가치를 지역 사회 내에서 직접 실천에 옮기면서 올바른 리더십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이다.

연세경영인들의 든든한 버팀목, 동문 네트워크

국내 최대의 멘토링으로 이미 AACSB로부터 그 도착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신입생 동문 멘토링은 동문 선배가 신입생에게 미래 설계와 건강한 인제가 갖춰야 할 인성을 지도하는 체험교육으로, 2008년 이래 지속되고 있다. 2010학년도에는 동문 89명이 경영학과 신입생 371명과 자유전공학부 입학생 중 경영학 신입생 101명의 멘토가 되어 활발한 멘토링 활동을 펼쳤다.

연경리더스포럼은 경영학과 정규 과목으로 14명의 핵심 산업계 리더를 초빙하여 강연과 커리어 멘토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핵심 산업계 전반에 대한 이해와 창조 경영의 사례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다. 2010학년도에는 김재호 하이드릭앤스트러글 대표, 김효준 BMW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박종원 코리안리재보험 사장, 손욱 서울대학교 초빙교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신현철 SK에너지 부회장, 박성수 이랜드 대표이사 회장, 양호철 모건스탠리 대표, 윤영각 삼정 KPMG 그룹 회장,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 조셉배 KKR 파트너 겸 아시아 대표, 최도석 삼성카드 부회장이 연사로 참여하였다. 2008년도 연경리더스포럼 수강 학생들의 보고서를 책으로 엮은 도서 「Creative Leadership, 대한민국 핵심 산업의 창조경영전략」(연세대학교 출판부)는 2010년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실용학문으로서의 경영학을 체험하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은 우리나라 최고의 경영대학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게 그 이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강의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봄이 오는 파릇한 교정에서, 학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이제 사회에 나갈 준비를 마친 이길훈 학생을 만났다.

최근 수험생들을 만나보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나 학부 선택에 대한 목표와 이유가 매우 뚜렷하다. 졸업 후 생각하는 취업이나 학업 등 진로 계획이 분명한 까닭으로 보이는데 인생의 목표가 그만큼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길훈 학생(경영 05)이 학창 시절의 목표였던 연세경영에 입학한 것 또한 그 '미래의 꿈과 무관하지 않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연세대학교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학교의 세련된 이미지나 분위기에 끌렸지만 수험생 시절, 대학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면서 연세경영이야말로 우리나라 경영대학의 진정한 메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세경영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 연세경영이 우리나라 최고의 경영대학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지금까지 대학 생활을 하며 그 믿음을 확인했고, 제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선택이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길훈 학생은 대학 생활 동안, 연세경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연세경영 학생이기에 누릴 수 있었던 많은 ‘기회’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 언제나 감사하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연세경영은 실제 강의 내용에 경영학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갖춘 것이 특징. 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동문 선배들의 훌륭한 가르침을 직접 전해들을 수 있는 멘토링 시스템, 학교-동문-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신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YOCP, ‘마이크로파이낸스와 소사업경영’ 과목에서 미소금융과 손잡고 미소금융지원을 받은 영세업체에서 봉사와 컨설팅 활동을 실시하는 YMCP 등이 그것이다.

“동문 멘토링 시스템으로 만난 선배님과는 지금까지도 안부



이길훈(경영 05)

를 주고받으며 진로에 대한 계획이나 고민이 있을 때 연락을 드리곤 해요. 바쁘실 텐데도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고 따뜻한 밥 한 끼나 술 한 잔을 사주시면서 제 고민 상담을 들어주십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연세경영 동문 특유의 끈끈한 학우애를 느낄 수 있었어요.”

YOCP 프로그램을 통해 신촌의 한 주점을 맡게 되었을 때, 주인과 학생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매출을 두 배 가까이 성장시킨 점, YMCP 프로그램에서 미소금융지원을 받은 영세업체의 컨설팅 터트로 활동했던 것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함께 호흡하는 실용학문으로서의 ‘경영학’을 배우게 되었다고, 또한 글로벌 프로그램의 하나인 uGET 프로그램으로 해외 수업을 참관하며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자질과 사고를 함양할 수 있었던 것도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꼽는다.

“학내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팀 프로젝트를 통해 조직 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훗날 사회 생활에서 큰 자양분이 되어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제가 사회에 나가게 되면 연세경영에서 받은 모든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의식 있는 리더가 되도록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졸업반이지만 사회에서는 곧 신입생이 될 새내기 의 포부가 씩씩하고 당차기만 하다.

국제화 전략에 부합하는 전문 커리큘럼을 익히다

학생들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커리큘럼

연세경영의 MBA는 타 대학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으로도 이름이 나 있다. 풀타임 MBA인 Global MBA는 '동북아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이라는 목표에 맞추어 동북아에 중점을 둔 교과목 'Exploring Emerging Markets: BRICs', 'Digital Revolution in Korea', 'Doing Business in China', 'Marketing in China' 등을 개설하였다. 이 과목들은 연세대 교수 외에도 중국 Peking University의 Li Ma 교수, Tsinghua University의 Shali Wu 교수, 일본 Keio University의 Kazuhiro Asakawa 교수 등이 참여하여 중국과 일본 비즈니스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Executive MBA, Corporate MBA, Finance MBA로 구성된 파트타임 MBA는 학업 활동의 시작인 오리엔테이션부터 색다르다. 체험 학습을 통한 팀워크와 리더십 체험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박 2일 동안 현대인에게 익숙한 술, 담배, 디지털 기기 환경을 벗어나 자연 환경을 활용한 체험 교육을 통해 상호간 의사소통에 집중하고 팀워크를 배우며 리더십을 체험하게 된다. 또한 산행을 통해 개인의 성취와 도전, 나아가 팀 공동의 목표 달성을 맞보며 협력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을 갖는다. 2010학년도에 처음 시작된 Executive MBA는 최고경영층이 필요로 하는 리더십 및 전략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해외기업의 현장 사례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국제적 경험과 안목을 축적할 수 있는 참여 중심의 글로벌 트랙을 운영한다.

EMBA 8가지 테마별 교육 과정

Theme 1 : Understanding Dynamics of Market & Organization

Theme 2 : Understanding Global Business Environments

Theme 3 : Building the Foundations for Effective Executives

Theme 4 : Cultivating Entrepreneurship & Business Innovation

Theme 5 : Creating Dynamic Capabilities for Market Leadership

Theme 6 : Evaluating Firm Value & Performance

Theme 7 : Developing Global Business Leadership

Theme 8 : Leading the Future

국제적 경험과 글로벌 트렌드를 배우는 해외 프로그램

연세 MBA는 '국제화'라는 콘셉트에 부합하는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운영중인데,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GET(Global Experience Trip), GFW(Global Field Work)가 대표적이다. 연세 MBA는 전세계 20개국 29개 학교의 해외 우수 MBA와 교류 프로그램을 맺고 있다. 2010학년도에는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중국 Peking University, Tsinghua University, 싱가포르 Nanyang Technology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프랑스 ESSEC, 일본 Keio University, 멕시코 IPADE 등에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글로벌 경험을 쌓았다.

2010학년도에는 GE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스페인 IESE Business School과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중국 CEIBS



Business School
Rankings 2010

영국 <Financial Times> 선정
'2010 세계 100대 EMBA'에서 71위 랭킹

국내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Corporate MBA가 세계 유수의 파트타임 MBA(Executive MBA) 프로그램 순위에서 세계 71위를 차지하며, 국내 경영학 교육의 선두주자인 연세경영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실하게 증명해주었다.

를 방문하였다. 각각의 주제도 다양하다. 스페인에서는 'Building Brands in Mature Industries'를 주제로 브랜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강연과 기업 방문을 통해 성숙한 시장에서 어떻게 브랜드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MBA 학생 41명이 참여한 중국 CEIBS 방문길에는 '중국 사회 개발과 CSR', '중국 소비자론', '중국에 대한 여섯 가지 잘못된 미신들' 등 현지 교수들의 강의를 통해 중국 경영을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었다.

Executive MBA 학생들은 2010학년도에 GET와 GFW 프로그램을 각각 한 차례씩 진행했다. 여름에는 Columbia University를 방문하여 'Leadership, Negotiations and Conflict Management'를 주제로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에 대한 토론회와 강의를 병행되었다. 그리고 네일 토털 전문 기업인 KISS를 방문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원동력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겨울에는 싱가포르의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를 방문하여 '싱가포르가 추구하는 신성장 동력 전략 벤치마킹을 통한 학습'을 주제로 프랑스 INSEAD 및 싱가포르 SMU와 NUS 교수들의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CDC(Career Development Center) 운영

연세경영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경력을 관리하고 개발하기 위해 CDC(Career Development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CDC에서는 MBA 채용 현황과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경력개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레주메북(Resume Book)을 제작하여 학생 개개인의 장점과 능력을 기업에 적극 알리고 있다. 또한 외국인 Global MBA 학생들과 한국인 파트타임 MBA 학생들을 매칭하는 버디 프로그램(Buddy Program)을 운영하여 각자의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 시각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COMMENT

하드 트레이닝과 휴먼 네트워크를 통한 열정의 시간

저는 연세대학교 세라믹공학과(재료공학과) 96학번 출신으로 졸업 후 삼성전자 비메모리사업부 공정엔지니어 및 기획팀에서 7년 근무하면서 투자, 중장기 계획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LG이노텍에서 신사업 추진을 위한 Alliance 및 M&A 등 Inorganic growth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연세 MBA(Corporate MBA)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우선 학부와 동대학이라는 점도 있지만, 타 경쟁 대학의 경우 야간 MBA가 없고, 주간이라도 1년 과정이라 완수된 학업과 인맥 구축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에서 경영은 '연세대'입니다. 관료들을 많이 배출한다고 해서, 입학 점수 수준이 비슷하다고 해서 동일 선상에 놓고 고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세 MBA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Hard training!'. 적당히 수업에 참가하며 인맥 확장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MBA에 지원한 것이 아니라, 학문과 사례를 가르치며 배우고 적용하려는 열정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강의시간 외에도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충만합니다. 이론을 가르치고 사례를 스스로 검토하고 고민하게 하여 실제 경영 현장에서 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알려줍니다. 앞으로 전공 분야를 살려 개인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연세 MBA에서 배운 모든 과정들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끈끈한 네트워크를 통해 우수한 연세 MBA 멤버들을 제 사람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특히 Global MBA에 재학중인 인터내셔널 학생들과의 교류도 탄탄히 하여 향후 사업을 해외로 확장할 때 적절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이창욱(Corporate MBA 89기)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대해 분석하는 경영학자를 양성한다

학문적 연구와 발전을 추구하는 석박사 과정은 지난 2년간 박사 졸업생 14명이 국내외 대학 교수로 임용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다. 이는 '기업 경영과 환경 변화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분석을 하는 경영학자 양성'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여 연구 역량과 교육 역량을 강화한 결과이다. 석박사 프로그램은 커리큘럼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성취욕을 고취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10학년도에는 이무원 교수(University of Hawaii), 이승현 교수(University of Texas), 알록 고쉬 교수(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등 해외 교수들을 초빙하여 학생들이 글로벌 트렌드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Academic Presentations and Debates' 과목을 통해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익혀 국내외 학술 대회에서 경쟁력을 높였다. 그리고 팀 티칭 교수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토론 기술을 향상했다.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장려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여 연구 역량을 증진시켰으며, 회계분야는 전 과목을 영어로 개설하여 장차 해외 대학 교수 임용에 대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또한 학문 분야별 연구센터를 운영하여 대학원생들이 능동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최상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환경과 조직적인 커리큘럼은 졸업생들이 향후 후학을 양성하도록 임명되었을 때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 방식에도 적용되어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다.

COMMENT

연구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연세경영

연세대학교는 경영학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선두적인 입지를 지키고 있을 뿐 아니라 학계와 실무에서 연세경영 석박사 동문들의 활약은 실로 대단합니다. 연세경영은 석박사 학생들에게 우수한 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를 위한 투자철학의 결과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박사 졸업생은 타 대학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며 학계와 사회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연세경영은 경영학 학문분야별 개별 연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관련 학문분야별로 대학원생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연구공간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일반 장학금(등록금) 및 우수장학금을 대폭 지원함으로써 최상의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은 경영학의 기본 정신인 실용주의에 입각해 매우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교육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역시 교수 임용 후에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배운 경영학의 기본 정신에 충실하게 교육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님들의 창의적인 수업 방식과 다양한 교과목 수강 경험들은 현재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는 저에게 큰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고윤성(연세대 경영학 박사 2007,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최고경영자를 위한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만든다

‘평생 교육’이라는 말이 있듯, 경영인에게 있어 끊임없는 배움은 나이와 지위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은 우리나라 최고경영자들을 위한 최고의 커리큘럼을 제공해 명실상부한 초일류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

성공한 경영인은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와 트렌드를 습득하고 언제나 책을 가까이하며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인다. 감성과 이성이 균형을 이루는 경영, 이제 최고경영자는 단순한 ‘사장’의 개념을 뛰어넘는 초일류경영을 이뤄내야 할 사명이 생긴 것이다.

연세경영의 최고경영자과정(AMP, Advanced Management Program)은 2010학년도 국내 최초로 ‘사장학(CEO학)’ 관점의 커리큘럼으로 개편했다. AMP 전담 디렉터로 강영기 교수(전 삼성전자 전무, 경영학 박사)를 임명하여 AMP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최근 세계 경제와 산업은 융복합화 추세에 따라 초경쟁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최고경영자과정은 ‘경영학’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연세경영은 최근 경제 및 산업 발전 패러다임 변화와 전통적인 경영학 교육방식의 한계를 인식하여 강의 구성과 운영 방법을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New Normal’ 경제로의 진입과 산업 내 또는 산업 간의 융복합화로 인하여 경쟁과 가치 창출의 범위와 방법이 경영학 태동 이후의 변화 추세를 초월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장학’이라는 관점에서 강의 구성과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경제와 산업발전을 주도하는 초일류경영을 교육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강영기 교수(AMP 디렉터)

연세경영의 AMP 프로그램은 최고경영자의 니즈에 맞춘 교육 과정으로 전면 개편되어,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고경영자들의 경영자적 기질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세경영의 AMP 프로그램은 경영시야 확대, 경영능력 배가, CEO 소양확대라는 세 가지 교육 목표 아래 연세대 사학과와 언론홍보영상학부의 협조를 받아 ‘초일류사고’, ‘미래변화’, ‘경영에센스’, ‘오너사장학’, ‘CEO 소양’이라는 다섯 가지 모듈의 강의 내용을 개발했습니다. 아울러 ‘Mutual Learning’, 선택과목, 요트와 사진 등 각종 동호회 활동을 통해 CEO가 한 차원 높은 공적·사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최고경영자과정이 교수에게는 최고경영자에게 어필하는 이론 개발의 기회를, CEO에게는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지식과 지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영자 교육 전범을 이루며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거듭나다

상남경영원은 기업의 경영자들을 위한 경영 교육을 목적으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내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경영자교육(Executive Education) 전문기관이다. 상남경영원의 사명은 최첨단 경영학 지식을 전세계 경영자들과 공유하는 것이며, 특히 비교적 짧은 기간에 경영 지식을 학습하고자 하는 바쁜 경영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교육을 설계, 운영하고 있다. 상남경영원의 비전은 전세계의 기업과 경영자들에게 한국 경영자 교육의 탁월함을 대표하는 것이며, 아시아 최고경영자 교육 전문 기관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대학 유일, 유럽위원회(EC) 교육 파트너로 선정

상남경영원은 유럽위원회(EC)에서 2010년 하반기에 공모한 한국 및 아시아 시장 경영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EC가 창설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유럽 최고경영자 교육 프로그램(ETP, Executive Training Program)은 EU 소속 국가들의 기업 경영 간부들이 한국의 사업 환경을 익히고 한국 시장에서 기업의 입지를 강화하는 법을 배우는 교육과정이다. 2013년에 시작해 2015년까지 3년 동안 상남경영원에서 총 세 차례 실시하며, 210만 유로의 규모로 진행된다. 상남경영원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3번의 ETP 과정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또한 다양한 해외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어 해외 주요 기관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경영자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이번 ETP는 국내 대학 중 연세대가 유일하게 EC로부터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연세의료원 Mini MBA 과정 개설

21세기 경영학은 기업경영자들에게만 국한된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학문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나가고 있다. 상남경영원과 연세의료원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연세의

료원 Mini MBA 과정은 의료계와의 첫 만남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본 과정은 첨단진료, 전문화, 의료기관 간 유기적 관계 구축을 통하여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고객을 섬김으로써 가장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발전한다는 연세의료원의 비전을 구체화한 교육과정이다. 아울러 상남경영원이 기업체 외에 새롭게 시작한 의료분야 전문 경영자 교육으로서 그간의 경영교육의 경계를 허문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2010년도에는 52명의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교수가 본 과정을 마쳤다.

2010학년도 교육 프로그램 강화

상남경영원은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설계된 모집과정과 기업별 특성 및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위탁과정, 해외 유수의 교육 기관과 파트너십을 통한 해외 연계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0학년도에는 고급기업분석과정, 고급마케팅전략과정, 프랜차이즈 CEO과정, 유통전문경영자과정, 2GSCM 경영자과정 등 총 9개의 모집과정을 운영, 39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올해 상남경영원에서는 총 21개의 위탁과정을 개설하여 629명의 기업 임직원이 참여하였고, 이 중 7개 교육과정이 2010학년도에 신규로 개설된 과정이다. 위탁과정을 진행한 기업체는 고려제강,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우건설, 동국제강그룹, 동원그룹, 서울반도체, 세아그룹, 신세계, 아세아시멘트, SK텔링크, 유진그룹, OCI, 웅진그룹, 일진그룹, 전문건설공제조합, KB국민은행, TOC 동양, 하이닉스 반도체, 한국주철관공업, 한국외환은행이다.



세계로 전진하는 연세경영의 국제화

21세기 산업에서 국제화는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는다. 다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국제화를 이끌어낼 것인가가 중요하다. 연세경영의 국제화를 가장 잘 실현하고 있는 베틀리 우 교수를 만나 연세경영의 국제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마치 학생처럼 앓던 차림의 베틀리 우(Betty H.T. Wu) 교수. 친근한 이미지만큼이나 학생들과 스스럼 없이 지내며 자유로운 수업 방식으로 학생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베틀리 우 교수의 강의를 수강했던 한진욱 학생(경영 10)과 베틀리 우 교수가 만나 국제적 사고의 리더십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Q 교수님은 어떤 계기로 연세대학교 강의를 맡게 되셨나요?

A 저는 대만 출신으로 타이완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를,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았어요. 2007년에는 네덜란드 틴베르헨 연구소(Tinbergen Institute)에서 경제학분야의 연구 석사를 마치고 2010년에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재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지요. 2009년 겨울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님 두 분과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터뷰를 하였고, 곧이어 2010년 2월 중순에 신촌캠퍼스를 방문했어요. 연세대를 방문했을 때 풍부한 연구자료들과 훌륭한 교수진, 최고의 연구를 향한 비전 등, 거부할 수 없는 매력에 끌려 조교수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작년 8월 말에 본격적으로 서울 생활을 시작했어요.

Q 1학년 때 교수님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딱딱한 주입식 강의가 아닌 토론 형식의 수업이 흥미로웠습니다.

A 연세경영 학생들은 제 기대 이상으로 수업 참여에 매우 적극적이며 영민하고 수업에 대한 열의가 대단합니다. 저는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제가 공부할 당시의 수업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편인데, 학생들이 어떠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Q 연세대는 그 어느 대학보다 ‘국제화’에 대해 적극적이라고



(좌) 한진욱 학생과 (우) 베틀리 우 교수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국제화’란 무엇이며 연세경영이 가진 강점과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개인적으로 국제화라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해내는 생각의 교류 그 이상의 것이라고 봅니다. 국제화가 이익과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연구와 수업, 두 가지 모두에 고르게 역량을 배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는 상보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지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과 재능을 더욱더 잘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적인 지식들과 경험을 제공하는, 개선된 교환 프로그램을 디자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 학생들이 해외에서 학문의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빙하여 연구에 관한 아이디어의 활발한 교류와 상호간의 자극이 새로운 아이디어의 태동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연세경영이 추구하는 ‘국제화’를 위해 교수님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연세경영의 Global MBA 프로그램과 학부생들을 위한 교환 프로그램들이 매우 잘 짜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다양한 학문적·문화적·민족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된 수업 공간에서 아이디어와 사고의 선순환이 이어지는 좋은 학문적 토양이 구축된다고 생각합니다. 순환하는 물에 새로운 물이 더해지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학교에서 저를 최초의 전임 외국인교수로 임용함으로써 국제화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저 또한 그 이상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연세경영, 세계로 비상하다

국내 대학 최초로 GMAC 회원 대학 승인

연세경영은 2010년 4월, 국내 대학 최초로 GMAC(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Council) 회원 대학으로 승인받았다. GMAC는 세계 22개국 183개 학교가 가입한 비영리 조직으로, 경영분야 수학능력 시험인 GMAT(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Test)를 관리하면서 입학 관련 각종 통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연세경영대학은 전 세계 22개국의 주요 대학 183개 회원 대학과의 교류를 증대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더욱 강화하며, 연례회의 참석으로 전세계 경영교육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또한 미국 버지니아주에 본부를 두고 있고, 전세계 투자 전문가들의 국제협회인 CFA 협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전문적인 실전 교육을 갖춘 금융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금융권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 우수 대학과의 협력 강화

연세경영은 해외 대학들과의 국제 관계 협력을 더욱 확대하였다. 2010년 MBA 프로그램으로 신규 교류 협정을 맺은 대학은 싱가포르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중국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영국 University of Warwick 등 14개의 학교가 추가되었다. 이에 MBA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더욱 강화되어 협력을 맺은 학교들은 아시아·아메리카·유럽·아프리카·중동 지역 등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자체 협정교는 총 29개 대학에 분포되어 있다. 중국 Peking University,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네덜란드 Erasmus University, 이태리 SDA Bocconi School of Management, 프랑스 ESSEC 등이 대표적인 협정 대학이며, 대륙별 협정교는 아시아 9개, 아메리카 7개, 유럽 11개, 아프리카 1개, 중동 1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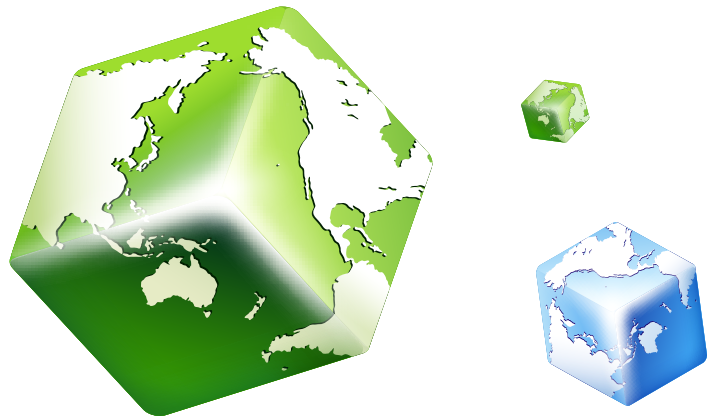
EQUIS 국제 예비 인증을 통과하다

연세경영은 연세경영의 미션이 잘 구현된 독창적인 커리큘럼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하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2008년에 AACSB로부터 경영학 품질 인증을 받았다. 연세경영은 AACSB와 함께 국제 인증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 EQUIS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0년도에 예비 인증을 통과했다.

EQUIS(the European Quality Improvement System)란 유럽 경영대학협회(EFMD)로부터 받는 국제 인증으로, 전략, 교육 프로그램, 학생, 교수, 국제화 등 10개 항목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EFMD는 비즈니스 스쿨들과 주요 기업들 간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최상의 실습과 변화하는 경향에 대한 지식을 창출하여 유럽과 전세계의 경영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학계, 경제계, 공공서비스, 컨설턴트 등 70개 국가의 600여 회원 조직들을 갖고 있다.

Yonsei-CMC 교류 협정

연세경영은 독자적으로 클레어몬트 맥키나 칼리지(Claremont McKenna College, CMC)와 교류 협정을 체결하였다. 학부 교환 학생 파견, 방학 중 단기 과정인 Yonsei-CMC Leadership 프로그램을 그 내용으로 하며, 양 교의 학부 졸업생 중 각각 1명을 선발하여 연세 Global MBA 과정과 CMC 파이낸스 석사 과정에 장학생으로 상호 파견하는 프로그램도 진행중이다. 특히, Yonsei-CMC Leadership 프로그램은 양 교 학부 학생 각각 10명을 선발하여 방학 중 5주 동안 기숙사를 같이 쓰고 양 교 교수진이 공동으로 강의하며 국내와 홍콩에서 현장 학습을 진행하는 등 residential college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클레어몬트에 소재한 CMC는 전형적인 명문 Liberal Arts College이면서 경영·경제 분야가 특화되어 있으며, 2010년 포브스지 선정 미국 대학 순위 9위에 오른 명문 대학이다.



세계를 누비는 연세경영의 교환학생과 인턴십 프로그램

연세경영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협정을 맺은 학교의 우수성과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현재 전세계 59개국 617개 대학과 교환 협정 프로그램을 맺고 있다. 2010학년도에 연세경영의 학부생 176명이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핀란드,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의 명문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었다. Global MBA 프로그램에서는 20명의 학생들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멕시코, 캐나다, 프랑스 등에 위치한 주요 MBA 스쿨로 파견되었다. 학부생들의 해외 프로그램 참여가 확대되고 영어 강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영어 교과목의 비중은 2010학년 1학기에 32%, 2학기에 39%로 상승하였다.

연세경영은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세계를 무대로 성장할 인재들이 실제 기업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외 소재 기업과 단체에서의 인턴십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2010년에는 22명이 투자은행, 컨설팅, 마케팅, 국내 대기업 해외법인 등 글로벌 기업, 국제 NGO 및 재외공관에서 현장 경험을 체험했다. 참여 기업 및 기관은 Deutsche Bank AG., The Royal Bank of Scotland, Eurex Frankfurt AG., Microsoft, A&A Consulting, IBREA Foundation, Humboldt University, 현대자동차, KOTRA,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등이었다.

연세경영은 글로벌 무대에서 학생들이 창의성과 진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계 유수의 Case Competition에 학생들을 파견하여 학교에서 배운 경영학 이론들을 직접 적용하고 개발해 보는 소중한 시간도 제공했다. 2010년도에는 Citi International Case Competition(CICC, 홍콩 과기대), NUS DBS International Case Competition(싱가포르 국립대), Global Business Case Competition(GBCC, 미국 워싱턴대학) 대회로부터 참가 초청을 받아 학생들을 파견하였다.

uGET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체험하다

연세경영의 uGET(undergraduate Global Experience Team-project) 프로그램은 세계 곳곳에서 경영 환경을 탐구하고 비즈니스 마인드를 쌓기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 중 하나로, 2010학년도에는 100명의 학생이 파견되었다. 여름에는 녹색성장위원회(1), 미래에셋증권(1), 신세계(1), SKT(1), 연세대 경영대학(2), 이랜드(2), 포스코(1), 함께일하는재단(1), 행복나눔재단(2), 희망제작소(1) 후원으로 총 13개 팀, 52명이 참여하였고, 겨울에는 숨아카데미(2), 아모레퍼시픽(2), LG전자(1), 연세대 경영대학(1), 웅진재단(1), 이랜드(2), 함께일하는재단(1), 행복나눔재단(1), 현대글로벌비스(1) 후원으로 총 12개 팀, 48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uGET 현황

기수	시기	참여 학생수		파견팀 수	파견국가수
		해외프로젝트	국내 인턴십		
1기	2008 여름	32	-	8	5
2기	2009 여름	56	-	14	12
3기	2009 겨울	40	40	10	6
4기	2010 여름	52	20	13	6
5기	2010 겨울	48	20	12	7

GMT(Global Management Track) 학생 14명은 2011년 1월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간 중국 북경과 상해로 세계기업현장실습을 다녀왔다. 이들은 중국을 방문하여 이곳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는 국내의 기업들의 성공 요인, 현지화 전략 등에 대해 탐구하였다. 학생들은 중국의 문화 산업(CJ 엔터테인먼트, Mnet, CGV, Bona Film), 피자과 베이커리 산업(피리마켓, 푸레주르, 미스터피자), 의류 및 화장품 산업(이랜드, 아모레퍼시픽), 유통 산업(동방 CJ 홈쇼핑, 이마트), 기타 산업(상하이자동차-GM, 북경수출입은행, 상해코트라, Fudan University)을 주제로 총 네 개 조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다. 세계기업현장실습은 1997년부터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모두 13회 실시되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달성할 7인의 우수 교수진을 확보하다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고 했다. 학문적으로 연구 실적이 뛰어난 전임교수와 사회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인 겸임교수로 구성된 연세경영의 교수진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최고 수준임을 입증받고 있다.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온 교수들을 대거 영입하고 강의와 연구 활동에 정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사회 전반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용학문으로서의 경영학이 가진 사례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더욱 수준 높은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교육과 학술 활동에 뛰어난 7명의 교수 대폭 확충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은 2010년 전임 교수진 확충을 위해 7명의 교수를 충원했다. 세계 우수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 활동을 해온 7명의 교수진은 특히 뛰어난 학술 활동의 경력을 지니고 있다. 신입 교수들에게는 임용된 지 3년 이내에 한 학기는 강의를 하고 다른 한 학기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학기제도가 도입되어 교수 본연의 목적인 교육뿐 아니라 연구 활동에도 더욱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전임교수 확대와 최고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겸임교수 확보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은 해를 거듭할수록 전임교수의 수를 확대하고 있다.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전임교원 100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2010학년도 객원 및 연구 교수로 강영기, 김동원, 노병탁, 양정미, 염지인, 이수진, 장명, 장정훈, 조성우, 최홍식 교수가 재직하였으며,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겸임교수로 포진되었다.

우수한 강의와 활발한 사회 활동을 병행하는 교수진

연세경영이 확보한 우수한 교수진은 수준 높은 강의는 물론 사회 활동과 학회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2010학년도 연세경영은 강의 우수 교수를 선정했는데, 1학기에는 학부에서 권구혁, 김진우, 이경태 교수가, 일반대학원



7인의 교수 Profile

노현탁	- 매니지먼트 전공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2010년 美 경영학회 논문상 수상 (Gender & Diversity Award)
배성주	- 오퍼레이션 전공, MIT - University of Hong Kong에서 1년간 교수로 재직
오원석	- 정보시스템 전공, New York University - McGill University에서 10년간 교수로 재직 - 부임 직후, 국제 Top Journ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에 논문 게재
윤대희	- 회계 전공, Yale University - CUNY-Baruch College에서 2년간 교수로 재직
이경미	- 마케팅 전공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Kansas State University에서 5년간 교수로 재직 - 부임 직후, 국제 Top Journal 「Journal of Consumer Research」에 논문 게재 확정
최정혜	- 마케팅 전공, University of Pennsylvania - 부임 직후, 국제 Top Journal 「Journal of Consumer Research」에 논문 게재
벤티우 (Betty H.T. Wu)	- 재무 전공, University of Amsterdam



왼쪽부터 오원석, 최정혜, 배성주, 베티 우, 이경미, 노현탁, 윤대희 교수

에서는 이지만 교수가, MBA에서는 정동일, 윤세준 교수가 선정되었다. 2학기에는 학부에서 손재열, 신동엽, 양혁승 교수가, 일반대학원에서는 김동훈 (마케팅 전공) 교수가, MBA에서는 서길수, 이호욱 교수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2010학년도 연세대학교 교무처에서 선정한 우수 강의의 교수로 김성문, 문두철, 박현준, 이동진, 이호근, 이호욱, 장진호, 한재훈, 허대식 교수가 선정되었으며, 연구처/산학협력단 우수 연구 실적교수로 손재열, 한재훈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연세경영은 사회 활동과 학회 활동을 활발하게 병행하는 교수진 또한 풍부하다. 신동엽, 정동일 교수는 '한국의 경영대가 30인'에 선정되었으며, 손성규 교수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주인기 교수는 LG전자 사외이사로 재선임되었으며, 김정동 교수는 삼성생명, 김진우 교수는 SBS와 다음커뮤니케이션, 박상용 교수는 포스코와 신한카드, 양혁승 교수는 삼립식품의 사외이사로 활동하였고, 이경태 교수는 도이치자산운용 및 GIIR에서 사외이사로,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양호재단의 비상임이사로 활동했다. 그리고 연강흠 교수는 한국투자증권 사외이사와 학교법인 국암학원 감사로 활동했다. 또한 오세조 교수는 유통물류정책학회 학회장으로 임명되었고, 김지홍 교수는 한국회계학회 학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연세경영 교수진들은 사회와 연계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겸임교수 현황

이름	소속
고병헌	(주)금비 회장
구재상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
구학서	(주)신세계 회장
권승화	한영회계법인 대표이사
권재석	(주)알피에스솔루션 대표이사
김수길	중앙일보 방송법인 JTBC 부사장
김창근	SK케미칼 대표이사 부회장
김학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김흥기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김효준	BMW Group Korea 대표이사 사장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
박영진	KPMG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양호철	모건스탠리 인터내셔널 증권회사 서울지점 대표
이강호	한국그린포스퍼프(주) 대표이사 사장
이수창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
이승한	홈플러스 그룹 대표이사 회장
이원창	예일회계법인 고문공인회계사
이철우	롯데쇼핑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
차석용	(주)LG생활건강 대표이사 사장
최도석	전. 삼성카드 부회장
최영상	A.T.커니 Korea 대표이사 회장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이사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으로 세계적 수준의 논문을 발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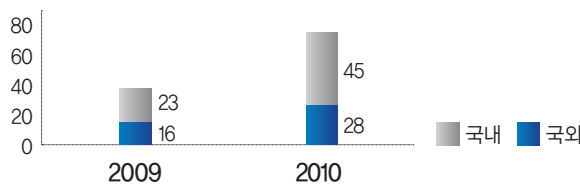
연구력 향상을 위한 교수 연구 지원

연세경영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하나의 미션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 우수 저널 위주의 연구 실적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해외 석학 초빙 및 해외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우수 교수 확보를 위한 연구 지원 시스템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국제 우수 저널의 논문 발표가 활발히 진행되고 연구 네트워킹이 강화되면서 국내외 경영학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2010학년도에 연세경영은 논문 게재, 교수 연구, 그리고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등을 위해 8억 3천여 만원을 지원하였다.

연구 네트워크 강화

2010학년도에 연세경영 교수진은 국제 학술지에는 21편, 국내 학술지에는 51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또한 연세경영은 2010학년도에 국제 학술 교류 활성화를 통한 연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외 대학 재직 교수 초청 세미나를 7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또한, 분야간 학문 트렌드 공유를 위한 세미나 개최 수가 현저하게 늘어났다. 해외에서 초빙된 교수는 Suresh M, Sundaresan(Columbia University), David R. Bell (University of Pennsylvania), James T.C Teng(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Shali Wu(Tsinghua University), Dilip Soman(University of Toronto), Stephen Figlewski (New York University), Yanagimachi Isao(Keio University), 신성재 (Washington State University) 등이다.

2010학년도 세미나 개최 현황



2010학년도 연구 관련 수상 실적

구본일 교수	"원화 이자율 스왑 시장에 대한 실증연구: 이론 이자율 스왑 금리 대비 평가오차와 차익거래 유인 분석을 중심으로", 우수논문상, 한국증권학회, 2011.02
김진우 교수	"Design-Oriented New Product Development", The Holland Award, IRI's Journal, Research-Technology Management (RTM), 2010.10
노현탁 교수	"The role of context in work team diversity research: A meta-analytic review", 2010 다양성분야 최우수 논문상, Academy of Management, 2010.08
박영렬 교수	"기업간 관련성과 인수 후 통합수준의 상호작용이 국제 M&A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우수 국내 논문상, 한국국제경영학회, 2010.11
손성규 교수	우수 도서 선정, 대한민국학술원 사회과학부문, 2010
신현한 교수	"유동성 위기상황에서 수신고객구조가 은행 위험에 미치는 영향", 우수 논문 시상, 한국금융학회, 2010.06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따른 대규모 기업집단의 투자 성향의 변화", 논문부문 우수상, 전국경제인연합회, 2010.12
엄영호 교수	"원화 이자율 스왑 시장에 대한 실증연구: 이론 이자율 스왑 금리 대비 평가오차와 차익거래 유인 분석을 중심으로", 우수논문상, 한국증권학회, 2011.02
오원석 교수	"Value Co-Creation and Wealth Spillover in Open Innovation Alliances", 우수 논문상, 한국경영정보학회, 2010.06
오홍석 교수	"경쟁적 패러다임과 인사조직연구: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중심으로", 인사조직연구 논문상, 한국인사조직학회, 2010.04
임건신 교수	"Value Co-Creation and Wealth Spillover in Open Innovation Alliances", 우수 논문상, 한국경영정보학회, 2010.06
정동일 교수	"Moderating roles of subordinates' attitudes o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effectiveness: A multi-cultural and multi-level perspective", Article of the Year (Best Paper Award), The Leadership Quarterly & Center for Creative Leadership (CCL), 2010.11
주인기 교수	제2회 시장경제대상 기고문 부문 우수상, 전국경제인연합회, 2010.12
최순규 교수	"기업간 관련성과 인수 후 통합수준의 상호작용이 국제 M&A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우수 국내 논문상, 한국국제경영학회, 2010.11
한재훈 교수	초헌학술상, 연세대 상경·경영대학 동창회, 2010.12

2010학년도 국제우수학술지 논문 게재

김영찬 교수	A Comparative Study on Parameter Recovery of Three Approaches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Journal of Marketing Research</i> , 47(4): 699-712
문두철 교수	Corporate Debt Financing and Earnings Quality, <i>Journal of Business Finance and Accounting</i> , 37(5-6): 538-559 Corporate Boards, Audit Committees, and Earnings Management: Pre- and Post- SOX Evidence, <i>Journal of Business Finance and Accounting</i> , 37(9-10): 1145-1176 Asymmetric Valuation of Sustained Growth by Bond- and Equity-holders, <i>Review of Accounting Studies</i> , 15(4): 833-878
민순홍 교수	A Firm's Capability to Calibrate Supply Chain Knowledge-Antecedents and Consequences, <i>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i> , 39(8): 1365-1375
박상용 교수	The Structure and Formation of Business Groups: Evidence From Korean Chaebols, <i>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i> , 99(2): 447-475
서길수 교수	Can Market Knowledge from Intermediaries Increase Sellers' Performance in On-Line Marketplace?, <i>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Commerce</i> , 14(4): 69-102
손재열 교수	Can Market Knowledge from Intermediaries Increase Sellers' Performance in On-Line Marketplace?, <i>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Commerce</i> , 14(4): 69-102
오원석 교수	A Network Perspective of Digital Competition in Online Advertising Industries: A Simulation-Based Approach, <i>Information Systems Research</i> , 21(3): 571-593
최순규 교수	Technological Knowledge Transfer within Chaebols after the 1997-98 Crisis, <i>Long Range Planning</i> , 43(5-6): 585-610
최정혜 교수	Spatiotemporal Analysis of Imitation Behavior across New Buyers at an Online Grocery Retailer, <i>Journal of Marketing Research</i> , 47(1): 75-89



연구에 정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받다

연세경영은 학생이 교육을 받기에도 매우 훌륭한 학교임은 물론 교수에게도 교육과 연구 활동에 매우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 학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야 하는 교수의 일차적인 역할뿐 아니라, 학자로서의 전문 분야 연구와 논문 발표 등 지식 활동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 전공 분야인 재무 분야 교수들이 서로의 연구에 대해 활발히 토론하고 최적화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된 점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러한 연구 환경을 바탕으로 미국의 <The Journal of Finance>에 'Financial Constraints, Debt Capacity, and the Cross-section of Stock Returns'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고, 이 논문으로 2010년 초헌학술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상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연세경영의 이름을 세계에 드높이고자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재훈 교수

전문 행정 시스템 구축으로 대외 경쟁력을 높인다

연세경영은 글로벌 비즈니스 스쿨로 도약하기 위한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 디렉터 두 명을 영입하였다. MBA 파트의 홍선주 실장은 하나대투증권, JP Morgan 홍콩 및 미국에서 임원으로서 쌓은 글로벌한 경력을 바탕으로 우수 인재 영입 및 니즈를 반영,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다. 대외협력 파트의 유초영 실장은 씨티은행, 홍콩 및 한국의 HSBC은행에서 사업개발전략 및 고객센터 총괄임원으로 일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동문 서비스를 통해 동문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기금조성 및 연세경영발전을 위한 대외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좌) 홍선주 실장, (우) 유초영 실장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통한 맞춤 시스템

연세경영의 MBA는 프로그램과 교수진, 학업 환경 등에 있어 국내외 우수 MBA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세경영 MBA는 전문 교육의 함양과 실무와 연계되는 인재 관리라는 MBA의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Career Development Center'를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경력 관리를 해주는 것과 동시에 사회와 기업에 적합한 자리를 매치해주어 MBA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성향과 목표를 확실히 파악하고 본인이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의 적절한 포지션을 매치하는 어드바이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Global MBA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전세계 우수 학생을 활발하게 영입하고 있고, 그 결과 2010년 17개국의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연세경영의 MBA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여 개인과 학교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길 기원합니다.

홍선주(MBA실장)

참된 기부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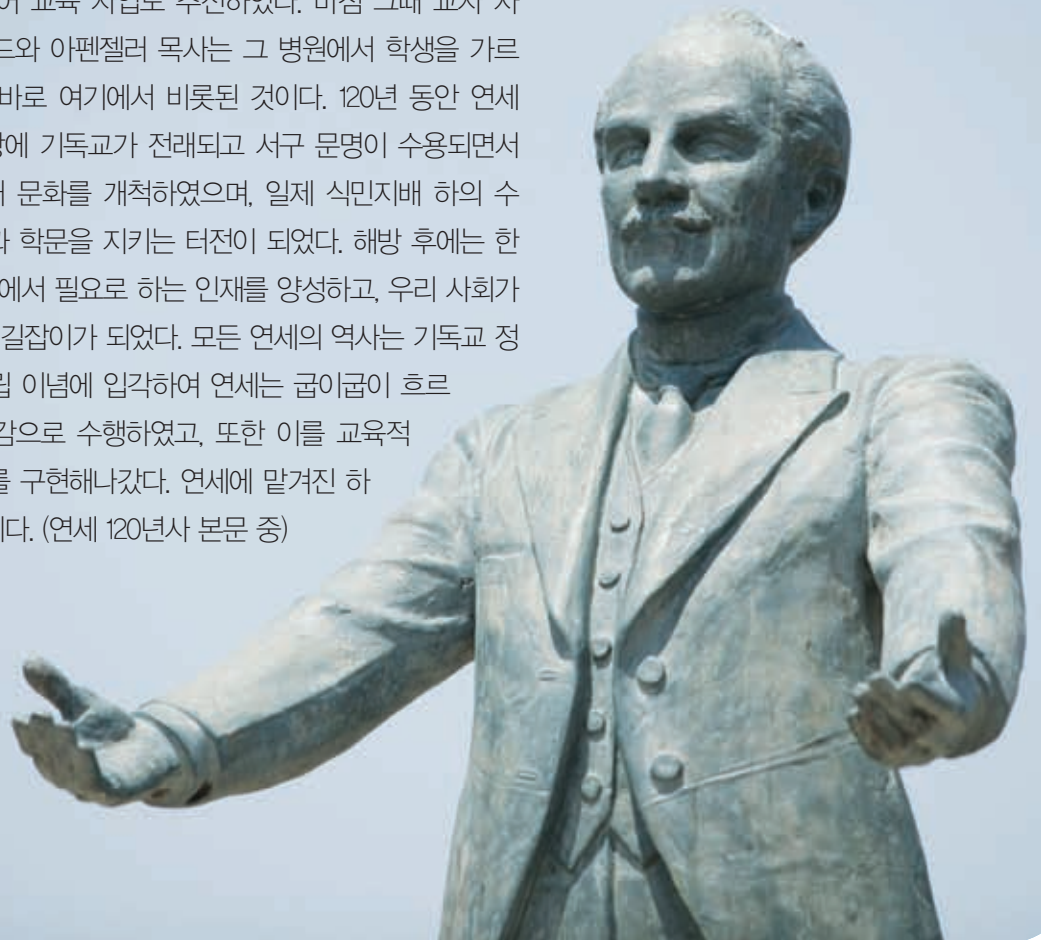
해외 우수 대학의 기부 문화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대학의 기부 문화는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누군가가 강요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연세경영은 성숙한 기부 문화와 높은 의식을 가진 수많은 동문들에 의해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 진출하여 연세경영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여러 동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부 문화는 학교 발전에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학교 또한 동문들에게 '연세경영인'이라는 자부심을 고취하고, 연세경영 발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동문 서비스를 통해 동문과 학교의 다각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13년에 완성되는 경영관 신축에 많은 동문들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상학 100주년을 앞둔 연세경영의 새 동지를 세우는 일에 여러 동문들의 관심 어린 시선과 따뜻한 정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초영(대외협력실장)

연세정신은 ‘나눔’입니다

오늘의 나를 키운 연세경영을 위해 이제 내 조그만 성취들을 나눌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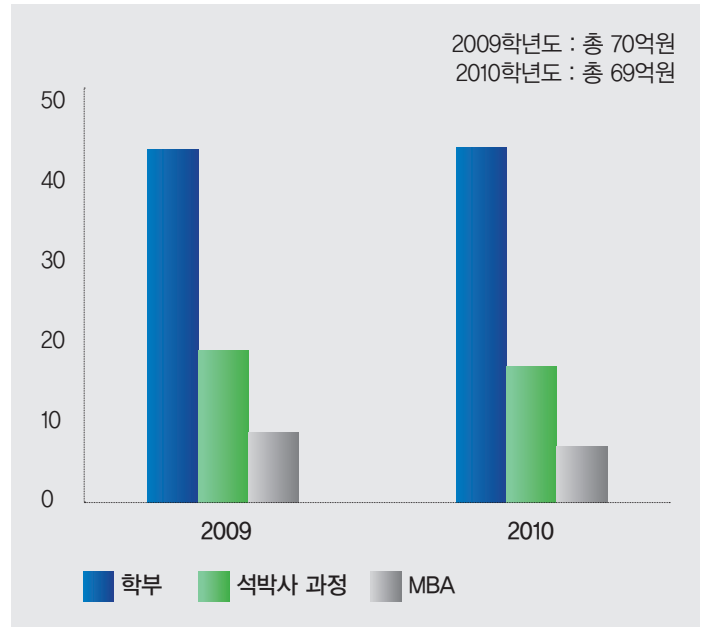
연세대학교는 알렌(H. N. Allen, 安連)과 언더우드(H. G. Underwood, 元杜尤), 그 밖의 서양 선교사들의 피땀과 눈물로 세워지고 발전되어온 기독교 교육기관이다. 한국 근대 역사에서 서양 선교사들과 기독교의 영향력이 가장 두드러진 곳이 바로 연세대학교이다. 그리고 그런 대학교가 지금 한국의 명문으로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대학교로 부상하여 그 명성이 두루 퍼져가고 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는 한국 대학교육을 주도(主導)하고 지속적으로 참신한 대학 교육의 진로와 이념을 공급하는, 앞서가는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것은 우리 대학교를 항상 진취적인 교육의 장으로 구도화(構圖化)시키고, 정신적인 세계문명의 시스템으로 교육 지표를 삼아오게 한 선교사들의 교육 지침과 선교 정신 때문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그 초기의 역사는 1885년에 알렌이 세운 광혜원(廣惠院)에서 시작되었다. 광혜원은 의료 사업과 더불어 교육 사업도 추진하였다. 마침 그때 교사 자격으로 한국에 온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목사는 그 병원에서 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연세의 교육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120년 동안 연세는 우리 민족과 함께하였다. 이 땅에 기독교가 전래되고 서구 문명이 수용되면서 이루어진 근대화 과정에서는 근대 문화를 개척하였으며, 일제 식민지배 하의 수난 속에서도 연세는 민족의 정신과 학문을 지키는 터전이 되었다. 해방 후에는 한국의 대학교육을 선도하면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 사회가 민주화와 통일을 향해 갈 때는 그 길잡이가 되었다. 모든 연세의 역사는 기독교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 그 창립 이념에 입각하여 연세는 굽이굽이 흐르던 민족사의 과제를 시대적 사명감으로 수행하였고, 또한 이를 교육적으로 실현하여 세계적 보편 가치를 구현해나갔다. 연세에 맡겨진 하늘의 사명을 다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연세 120년사 본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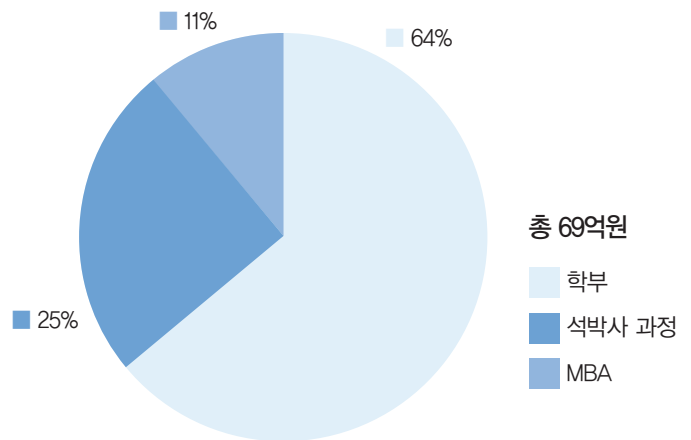
재학생 모두가 장학생이 되는 그날까지!

연세교육의 뿌리는 오늘날에도 동문들이 후원하는 장학금과 (고)임익순 명예교수, 정종진 명예교수 장학금을 비롯한 기타 여러 재원의 장학금을 통해서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2010학년도에 연세경영 재학생들은 약 69억 원의 장학금을 수혜받았다. 그중 64.3%인 약 44억 원은 학부, 25.3%인 17억 원은 석박사, 그리고 11.2%인 약 8억 원이 MBA 학생들에게 지원되었다. 2010학년도 학부생의 장학금 수혜율은 1학기 37%, 2학기 48%이며, 석박사생은 1학기 65%, 2학기 68%이며, MBA 학생은 1학기 11%, 2학기 16%였다. 이를 전액 장학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등록금 대비 장학금액의 비율은 학부 33%, 석박사 과정 87%, MBA 7% 수준이며, 이 비율을 45~50%로 증가시키는 것이 2015년 연상 100주년을 맞이하는 연세경영의 비전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문 기부 및 외부 재원으로 마련되는 경영대학 장학금을 약 20억 원 이상 추가로 조성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장학금 후원이 절실하다. 경영대학 동창회의 블루 버터플라이 장학금 캠페인 등에 힘입은 동문들의 장학금 지원이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하여 후배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 블루 버터플라이 캠페인의 모토처럼 연세경영의 재학생 모두 장학생이 되는 그날을 함께 꿈꾸고 이루어가길 기대해본다.

연세경영 장학금액 추이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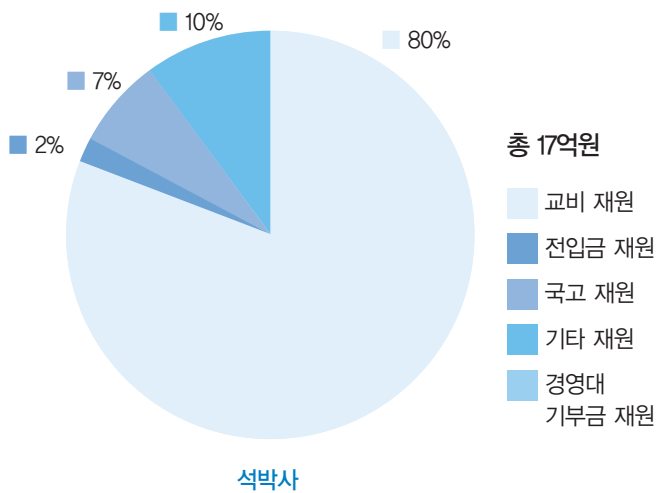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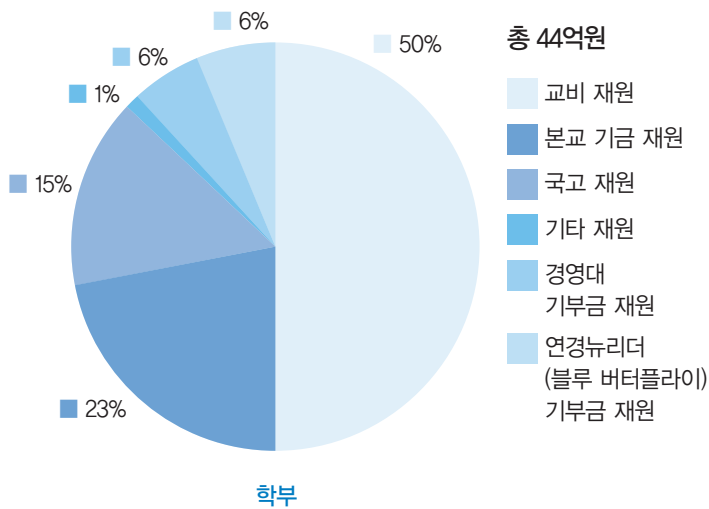
2010학년도 연세경영 장학금 수혜 현황



작은 정성을 모아 큰 뜻을 이루다



연세경영 장학금 자원 구성비



연경뉴리더(블루 버터플라이) 장학금은 (재)연경장학회에서 재원을 조성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연경장학회는 경영대학 동창회가 후배들의 학업을 진작하고, 우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1989년에 설립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연경뉴리더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우수한 신입생들을 선발하여 후원해왔다. 이 장학 사업은 하루에 1천원씩을 기부하는 동문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작은 금액이 십시일반으로 모여 큰 금액이 되어 후배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4년 전액 등록금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비용 1천만원을 지급하는 '연경뉴리더장학금'은 2011학년도부터 그 이름을 연경뉴리더(블루 버터플라이) 장학금으로 바꾸어 운영하고 있다.

연경뉴리더(블루 버터플라이) 장학금은 이제 경영대학의 대표적인 장학금으로 자리 잡았다. 신입생과 학부모의 장학금 지원 열기도 높아져 2010학년도의 장학금 지원 경쟁률은 7 대 1을 넘어섰다. 특히 2011학년도에는 학비 마련에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우수 학생들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선도할 탁월한 잠재력을 갖춘 신입생, 두 파트로 나누어 장학생을 선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2010년 3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상경·경영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제3회 블루 버터플라이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되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경영대 14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장학증서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동문 선배님들의 참여로 이뤄진 뜻 깊은 장학 사업의 수혜자가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이러한 기대에 힘입어 학업에 더욱 정진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마음을 담은 참된 기부를 실천하다

이두원(상학 58, (주)한양철강 회장)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양적, 질적으로 가파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 춥고 배고픈 시절을 버티며 한국인 특유의 근성과 성실함으로 산업의 역군이 된 인생 선배들이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며 힘든 처지에 놓인 후배들을 위해 앞장서서 후원금을 회사하고 있다. 연세 상학 58학번 출신의 이두원 동문은 힘들었던 젊은 시절을 보내며 나중에 사회에 나가 성공하면 옛날의 자신처럼 처지가 어려운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다짐했다고 한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 때부터 스스로 학비를 조달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유무형의 도움이 컸어요.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주었지요. 그러한 도움들이 제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그 마음을 교훈 삼아 장학금을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두원 동문은 지난 28년 동안 매 학기 경영대학과 상경대학에 각각 5백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해왔다. 오랜 기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꾸준하게 장학금을 기탁해온 것은 이 동문의 성실함과 애교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받은 훌륭한 가르침과 인성 교육이 졸업 후 직장생활이나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되도록 많은 기회와 도움을 주고자 장학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고등학생 100명에게도 매 학기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동문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장학금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고, 사회에 나가서도 본인이 가진 능력이나 경제력을 긍정적으로 환원하게 된다고 굳게 믿는다. 장학생들이 직접 쓴 감사 편지를 받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이두원 동문의 따뜻한 마음이 많은 후배들과 동문 그리고 나아가 사회에도 널리 전파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 학기에도 선배님께서 후원해주시는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감사의 마음을 글로나마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남학생들이 그렇듯이 저 또한 군대에 가기 전까지는 성적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매 학기 비싼 등록금을 내주시는데 한 푼도 보태지 못했던 죄송스러움을 조금이나마 갚고자, 제대 후에는 장학금을 바라보며 학점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고학점을 얻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졸업을 1년 앞두고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어 선배님이 주시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곧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게 되어 여러 가지로 염려도 되고 긴장도 큼니다. 선배님께서 심어주신 자신감을 기억하며 곳곳하게 홀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주신 선배님께 감사드리고, 사회에서도 선배님과의 인연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동욱(경영 04)

“ 저는 사실 이제 막 새내기를 지나 2학년이 된 터라 이렇게 훌륭한 취지의 장학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선배님께서 후배들에게 주시는 장학금의 취지를 듣고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성공을 하면 나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선배가 되어야겠다’라는 막연한 포부는 있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용기와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께서서는 28년째 매 학기마다 500만원의 장학금을 모교에 기부해오셨다니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선배님께서 후원해주시는 장학금을 받고 더 열심히 제 꿈을 위해 노력하여 선배님과 같이 사회에 큰 공헌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끊임없이 제 자신을 갈고 닦겠습니다.

이동은(경영 10)

이두원 장학생 감사 편지



“ 학교에서 주는 것이 아닌 동문 장학금을 받는 것이 처음이라 설레고도 기쁜 마음입니다. 우선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일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하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연세경영에서 공부를 하면서 훌륭한 교수님들과 다양한 커리큘럼 등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좋은 학우들과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무척 기쁩니다. 저는 올해 연세경영 홍보대사 BizYON의 8기로 선발되어 학교 홍보를 하며 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알게 되면서 연세경영에 대한 애교심이 커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각계에서 활동하시는 동문 선배님들께서 학교를 직접 찾아주셔서 후배들을 친동생처럼 대해주시며 인생 경험에 대한 조언을 들려주시는 동문 멘토링 행사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서서히 봄이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교정에도 이제 곧 벚꽃과 개나리가 가득할 것을 생각하니 새 학기에 대한 기대가 커져갑니다. 선배님께도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따뜻한 도움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자랑스러운 연세경영의 후배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영(경영 10)

모교 사랑을 실천하는 세경장학금

최희규(경영 83, ASKNBID 대표)

세경장학금은 연세경영인들이 모교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서 이웃에 봉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며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리더로 도약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운영되고 있다. 모교 경영대를 졸업한 최희규 동문(경영 83)은 모교에 대한 자부심이 사회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해왔다고 한다. 그러던 차에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후배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자는 생각에 장학금을 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장학금 이름 또한 '세계

로 발돋움해가는 연세경영, 세계 경영을 기원하는 의미로 세경장학금이라 명하게 되었다고 한다. 2007년도부터 매 학기마다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으며, 세경장학생들이 글로벌 경영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인격과 실력을 갖춘 진정한 리더로 발돋움하여 다음 세대를 이끌 재목이 되어줄 것을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또한 훗날 장학금의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후배들에게 연세경영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것을 실천하는 마음이 이어지길 바라는 희망도 함께 담고 있다.

세경장학금의 장학생으로 선정되자 같은 과 친구들로부터 많은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선배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을 전하니 다들 무척이나 감명을 받은 듯했습니다. '연세경영인'이라는 것이 한결 따뜻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선배님의 후배라는 것이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선배님, 혹시 5월에 열리는 '아카라카를 온누리에' 연세대학교 축제를 기억하시는지요? 이번 해에도 어김없이 연세대학교의 열과 혼이 깃든 노천극장에서 5월 13일 금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시간이 귀찮으시다면 오랜만에 학창 시절의 추억 속으로 함께하셔서 '아카라카!'를 외쳐보시면 어떨까요? 선배님께서 함께해주시면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큰 뜻을 품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균(경영 05)

저는 1학년 여름방학 때 '연고제 기획단'에 참여하게 되면서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학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옮기는 일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간 수동적으로 '나는 연세대학교 학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시기 즈음에는 능동적으로 '연세대학교는 나의 학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는 기획의 땅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번 가을학기에 저는 학교가 만들어주는 또 다른 기회를 선물 받고 스웨덴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북유럽으로 1년이나 떠나게 된 것이 내심 어머니께 죄송했는데, 이렇게 세경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현지에서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대학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보내주셨던 이메일을 통해 '연세를 사랑하는 학생들이 이 장학금을 받는 것은 의무이자 권리'라고 하셨던 선배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두고 후배들과 친구들에게도 이 뜻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선연(경영 09)

세경장학생 감사 편지

다른 유능한 지원자들 중에서 저를 세경장학생으로 선정해주신 것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히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주신 것 또한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선배님께서도 학창 시절에 많은 행사를 준비하시며 고충을 겪으셨지만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한 재산이 된다는 그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를 제 가슴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Harvard Project for Asian and International Relationship' 콘퍼런스 준비 과정에서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혀 힘들었는데, 저 자신에게 다시금 동기부여를 해주신 분이 바로 선배님이십니다. 이제는 전 세계를 무대 삼아, 그리고 해외 유명 대학을 파트너 삼아, 보다 크고 넓게 뻗어 나가는 연세경영인이 되고 싶습니다. 선배님께서 이메일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받게 되는 이 장학금은 후배들에게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자산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또 선배님께서 세경장학금을 만드신 훌륭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루하루 열심히 매 순간 최선을 다하도록 제 자신을 채찍질할 것입니다.

이기연(경영 08)

빛을 안고 떠납니다

홍형진(경영 06, 2010 세경장학생, 2010년 「문학사상」 신인문학상수상)

아주 어릴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학교 가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다. 아니, 싫어했습니다. 재미가 없었습니다. 홀로 음악, 책, 스포츠 따위에 탐닉하는 게 백만 배는 더 즐거웠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때 공부에서 손을 뗐습니다. 프로 뮤지션이 되겠다고 폭탄 선언한 후 온종일 기타만 쳐댄 것입니다. 죽어도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모든 시험에서 백지답안을 제출했던 덕에 성적은 당연히 밑바닥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입학한 대학은 두 시간 만에 자퇴했고, 그 후 6년 이상 고졸로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대학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신기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냥 뭐라도 좀 배워서 텅 빈 머리를 채워보고 싶어졌습니다. 또 괜찮은 간판도 한 번 달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것저것 배우고 익혀 문화산업계에서 의미 있는 뭔가를 일궈보고 싶어졌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한 뭔가를 말입니다.

결국 어쩌다 보니 실수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옛 친구들이 죄다 졸업해서 사회로 나가던 시기에 늦깎이로.

입학하자마자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바로 장학금입니다. 넉넉하지 못한 환경의 제겐 무엇보다 그 장학금이 절실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자취 생활비와 등록금을 동시에 벌며 학업 및 다른 일을 병행하기란 전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 당시 무능하고 의지박약한 제겐 그랬습니다.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빛을 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2학기엔 성적우수장학금을, 3~7학기엔 교외장학금을, 마지막 8학기엔 세경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총 다섯 번의 전액장학금과 두 번의 부분장학금, 만약 이들이 없었다면 전 대학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놓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의이든 타의이든 간에 말입니다. 해서 겸허히 인정합니다. 제가 받은 장학금들은 부인의 여지 없는 명백한 빚입니다. 제가 평생을 두고 갚아야 할 빚.

고백합니다. 사실 전 부끄러우리만치 미운한 사람입니다. 지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결코 성숙하지 못했으며 서른 줄에 접어든 지금도 여전히 아집과 독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게 연세대학교는, 그리고 세상은 용기를 가지고 소신껏 살아도 좋다는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장학금이란 이름으로 말입니다. 제게 그것은 단순한 등록금이 아니었습니다. 힘찬 격려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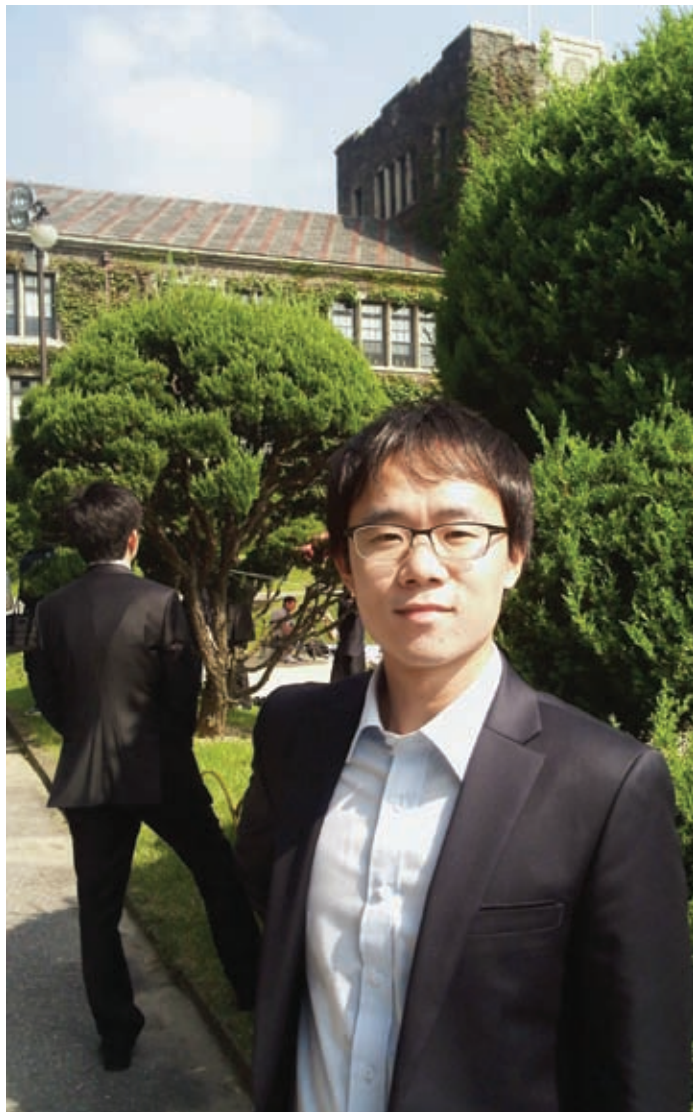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갚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후배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제 삶을 통해 하나하나 갚아 나가겠습니다.

요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전 그냥 하고픈 말들을 담아서 끼적대고 있을 뿐인데 세상은 그걸 소설이라고 부르고 또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헌데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소설이고 뭐가 문학인지. 그냥 쓰고 싶어서 쓰는 것이니만큼 남들 눈치 안 보고 소신껏 써보려고 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제가 짊어진 그 빛을 갚아나가는 첫걸음이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연세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평생 정진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

황칠상(경영 02, 2010 이두원 장학생)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운이 좋게도 여러 차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장학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학금은 '이두원 장학금'과 '하남 문경도 장학금'입니다. 학교에서 지원하는 일반 장학금과는 달리 선배님들의 성함으로 된 장학금을 받았을 때는 더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기부하신 선배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고, 앞으로 나도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선배가 되자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장학금을 주신 선배님께 감사의 편지를 쓸 기회가 있었는데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선배님과의 약속을 꼭 지키자는 스스로의 다짐도 하게 되어 생활의 나태함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대학 출신의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타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금전적인 혜택으로 인해 물질적인 여유가 생겨서 기쁜 것도 있었지만, 많은 동문들과 선배님들이 힘써줬기 때문임을 알았기에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높아지고 선배님의 사랑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였고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학부 때와는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늦은 나이에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는 것이 어렵고 위험하지 않느냐고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그러한 도움을 사회에 환원하여 많은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저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에 어렵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부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동문들과 선배님들이 주변에서 항상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연세경영의 저력은 동문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동문들이 학교에서 혜택을 받았고 저 역시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이러한 고마움이 동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이 되어 지금의 연세경영을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재학생이 아닌 졸업생의 입장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공공영역에서 제 능력을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활용하는 자랑스러운 연세경영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훌륭한 선배님들에게 자랑스러운 후배가 되고 사랑스러운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배가 되겠습니다.

늘 가슴속 한켠에 뿌듯한 자부심으로 자리 잡은 '연세경영'. '연세경영'이 나만의 자랑이 아닌 이 사회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의식 있는 지성인으로 성장하여 사회를 이끌어가고 책임을 다하는 훌륭한 연세경영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눔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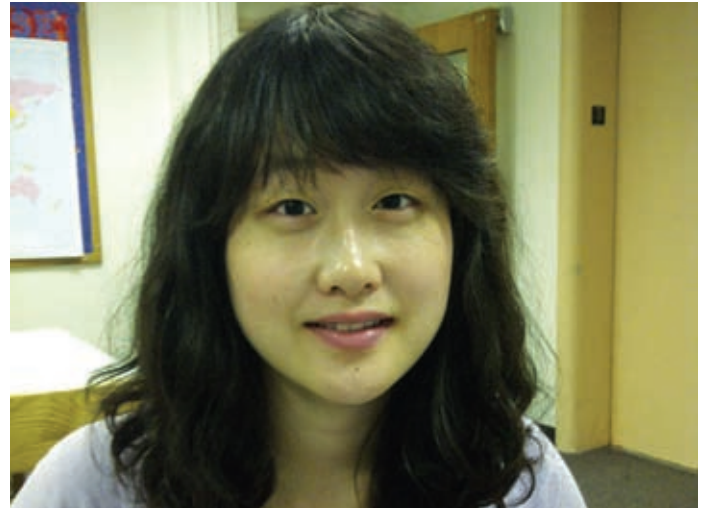
김지영(경영 09, 크리에이티브리더 장학생)

경영학과 09학번인 저는 2학년 1학기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새로운 세상을 접하고 싶다는 생각에 교환학생에 지원하였고, 현재는 미국 동부 코네티컷에 있는 University of Connecticut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1년이 훌쩍 가서,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인지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일본 동북부에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며칠 전에는 서울에도 방사능 비가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재앙이 닦쳤다는 뉴스에도 놀랐지만, 한번 더 저를 놀라게 만든 뉴스는 멀고도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일어난 이 재앙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구호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마도 국경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부'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나 봅니다.

대학생이 되면 정말 뭔가 다르게 지낼 것만 같은 포부를 갖고 입학했던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생이라는 신분이 주는 자유로움만 만끽하면서 지난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성인'이라는 타이틀이 선사한 자유로움에 도취되어 내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은 애초에도 없진 않았나요?

몇 년 전 저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당시 어머니께서 외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마음에 남았던 부분은 그 가난했던 시절에 외할아버지 회사에서 일한 직원들의 자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외할아버지는 누구에게나 공부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직원 자녀들의 학비를 조용히 뒤에서 지원해주셨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외할아버지를 자주 찾아뵙기는 했지만 살갑게 다가서지는 못했던 손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작 외할아버지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내 주변을 둘러보면서 주위로 눈을 돌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도 그러한 외할아버지를 보면서 성장해서 그러신지, 비록 조그마한 도움일 수 있지만 길을 가다 몸이 불편한 분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거나 기부행사가 있을 때는 기꺼이 손을 내밀고, 참석하시곤 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항상 저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것에는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하면서, 남을 돕는다는 행위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염되고 전파될 수만 있다면 이 사회에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부 문화가 다른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의 CEO나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나 기부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역시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죠. 그동안은 기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점, 장학금을 받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누가 어떤 이유로 나에게 장학금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제가 받는 그 장학금도 어떠한 사람의 기부로 이뤄졌을 텐데 말이죠. 이 글을 읽는 사람 중 한 명이라도 기부가 큰 것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실천해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길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글로벌 경쟁을 위한 경영관 설계

이호근 교수(경영대학 기획부학장 겸 신축 TFT 팀장)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영역에서 싸우고 있다. 2020년까지 아시아 3위권, 글로벌 30위권 진입이라는 경영대학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수 연구진이나 국제화된 커리큘럼과 같은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강의실이나 연구시설과 같은 하드웨어의 선진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영대학은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영관을 목표로 설계를 진행 중이다.

경영관은 백양관 맞은편 용재관이 놓여 있는 대지(2,760m², 835평)에 지하 3층~지상 9층의 현대식 건물로 신축될 예정이다. 연면적 7,500평 규모로 주차장(지하 3층), 학부공간(지하 2층~지상 1층), MBA 공간(지상 2층), 행정공간(지상 3층), 도서관(지상 4층), 그리고 연구실 공간(지상 5층~9층)으로 나뉘어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경영관 설계는 학생들에게는 최고의 강의시설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교수진에게는 국제 수준의 연구시설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경영대학 경영관 설계팀은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설계하기 위해 미국 및 아시아의 주요 경영대학을 직접 방문 조사하였다. 최근에 우수 경영대학 건물로 선정되어 건축가협회상 등을 수상한 해외 경영대학들의 신축건물들을 벤치마킹한 결과, 경영관 설계에 아트리움(Atrium)을 포함시키고, LEED 인증(국제친환경 인증)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영대학에는 학부생,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MBA 학생, 그리고 교직원과 같은 다양한 그룹의 커뮤니티가 존재한다. 아트리움은 경영대학 내 다양한 커뮤니티가 함께 소통(Communication)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



는 중심 축 역할을 하게 된다. 아트리움은 400m²(120평) 규모의 면적에 3층 높이로 설계하여, 건물로 진입하는 학생들이 넓은 아트리움을 통해 건물 후면의 자연녹지 공간을 만나게 함으로써, 자연과 소통하는 건물이라는 느낌을 가지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세경영의 3대 핵심가치(창의성, 국제성, 윤리성)를 지향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아트리움에서 개최하도록 하여 다양한 커뮤니티 간의 소통을 위한 인프라 역할을 하도록 배려하였다.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는 에너지와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인증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그린빌딩협회(USGBC)가 제공하는 국제인증제도이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외에서 최근에 신축된 경영대학 건물들은 LEED 인증을 받고 있으나, 국내 대학에서는 아직 LEED 인증사례가 없어 경영관이 LEED 인증을 받게 되면, 국내 대학으로는 최초의 친환경 국제인증건물이 될 전망이다.

미래지향적이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경영관은 2013년 여름 준

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영관이 들어설 용재관 부지는 신촌캠퍼스의 중심 부분에 해당하며, 고전적인 건물들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만나는 접점이기도 하다. 경영관이 신축되면 세계적인 수준의 강의와 연구시설로 경영대학의 글로벌 경쟁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가 완성된다. 동시에 LEED 인증을 통해 신촌캠퍼스의 친환경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역할도 할 것이다. 경영관이 신촌캠퍼스의 랜드마크적인 건물로 완공될 수 있도록 동문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을 기대한다.

건축 경과 및 일정

- 2009.6. 신축건물 설계안에 대한 주요사항 검토 설명회(3개 설계사)
- 2009.9. 경영대학 신축부지 변경 본부에 공식 요청
- 2010.9. 경영대학 신축부지 용재관으로 결정
- 2010.10. 경영대학 신축부지 (용재관) 이사회 승인으로 확정
- 2011.6. 경영대학 신축건물 설계 완료
- 2011.9 ~ 2013.7. 신축공사
- 2013.8. 신축건물 입주



경영관 개념

친환경적, 미래지향적 신축건물 : 신촌캠퍼스의 랜드마크 건물
 경영대학 Core Value 반영 : Creativity, Globalization, Integrity

경영관 부지

용재관 ('70년대 도서관, 현재 교육과학대학)
 신촌캠퍼스의 중심 : 중앙도서관 및 학생회관과 근접
 자연 경관 : 노천극장 및 청송대 숲과 근접

신경영관 규모 및 특성

지하 3층, 지상 9층 (7,500평 규모)
 자연녹지와 연결되는 Atrium 공간 : 학생-교수 커뮤니티 공간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활용한 최첨단 연구 및 강의시설

경영관 신축 일정 2013년 완공 및 입주

총공사비 550억원 규모

건축기금 조성액 총 280억원

서경배 동문(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사장) : 100억원
 개인기부금 (2004년 이후) : 100억
 자체 적립금 : 80억 (2004년 이전 발전기금, 상남경영원 수익금 등)

신축기금 추가조성 목표 27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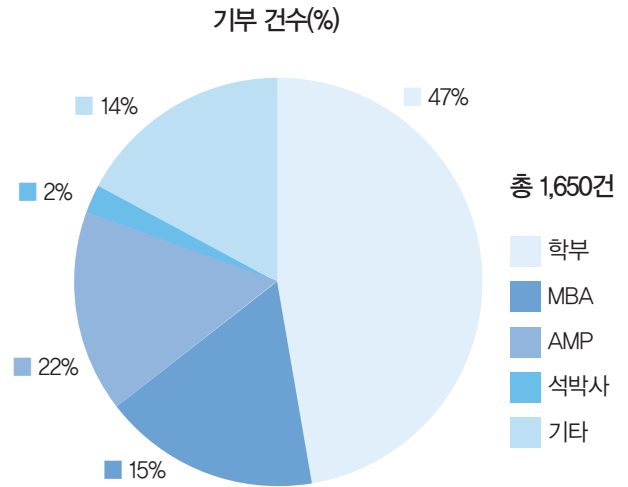
기업기부금 100억원
 동문기부금 17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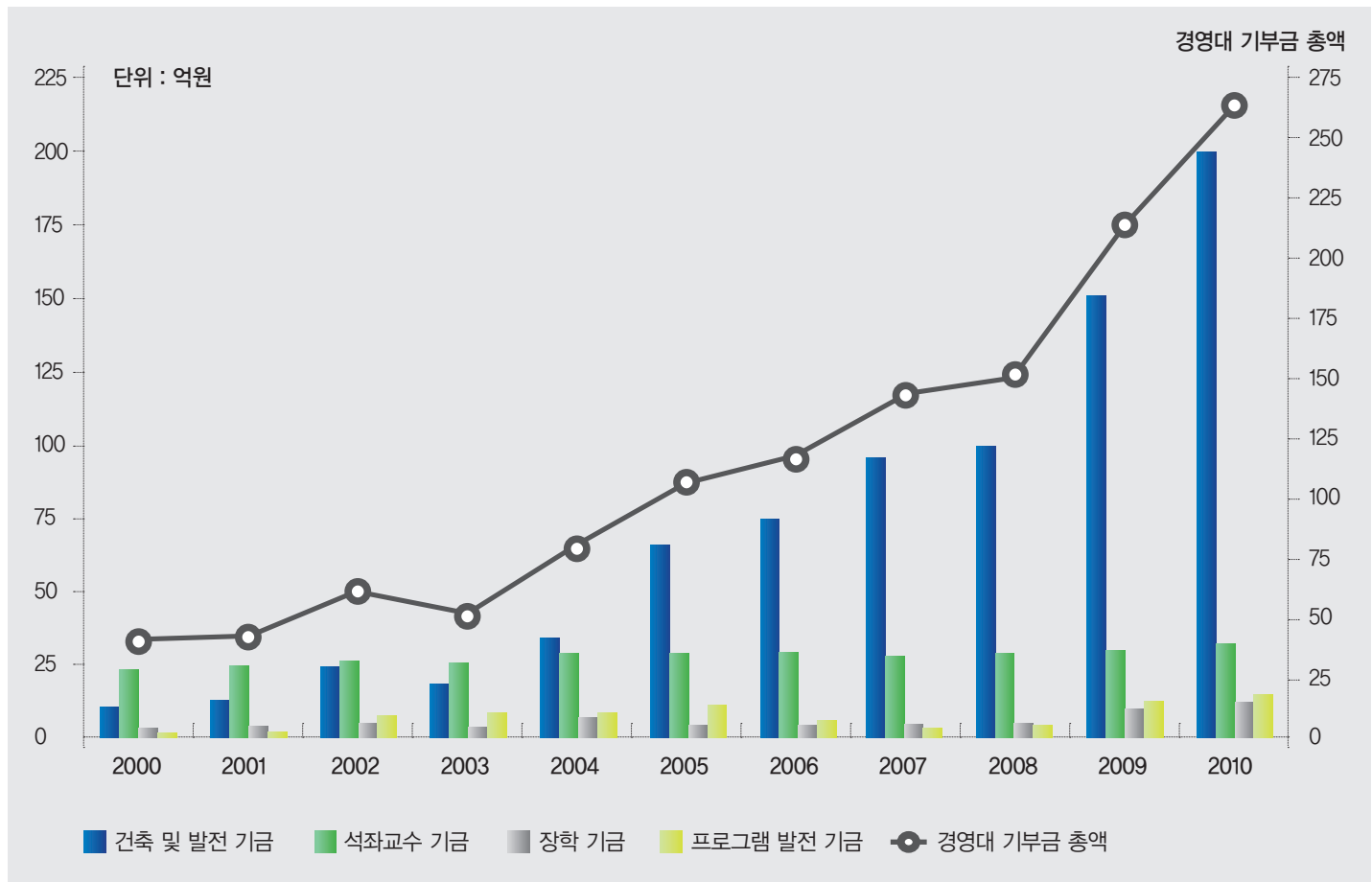
나눔이 연세경영을 바꿉니다

2010학년도 경영대학 기금 잔액은 260여 억원이며, 그중 건축 및 발전 기금은 2009학년도 대비 25%, 약 40억원이 증가한 198억원으로 2010학년도 당기 기금 잔액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다.

기부금 통합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지난 20여 년간 조성된 경영대학 기금은 260여 억원으로, 기부 건수 기준 약 1,650건이며, 그중 8%가량은 2000년도 이전에 조성되었고, 2004년 이후 건축 및 발전 기금의 후원이 더욱 활성화되어, 경영대학 기금 조성액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2015년 연상 100주년을 맞이하는 연세경영의 우수한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며 또 다른 한 세기를 위해 비상할 연세경영의 동지를 마련하는 발전 전략을 세우고 세계적인 우수 대학과 경쟁하여 비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금 조성은 필수불가결한 선행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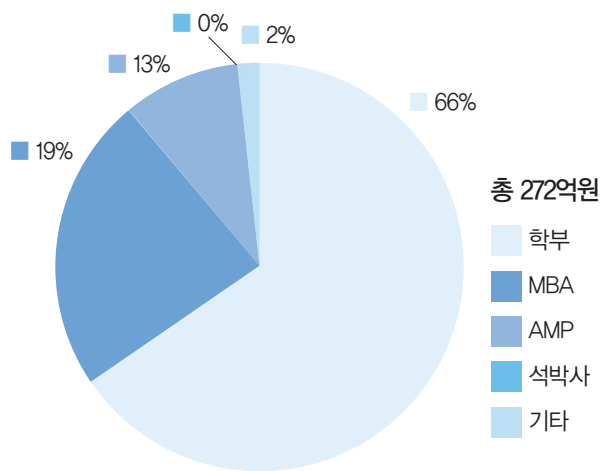
경영대학 기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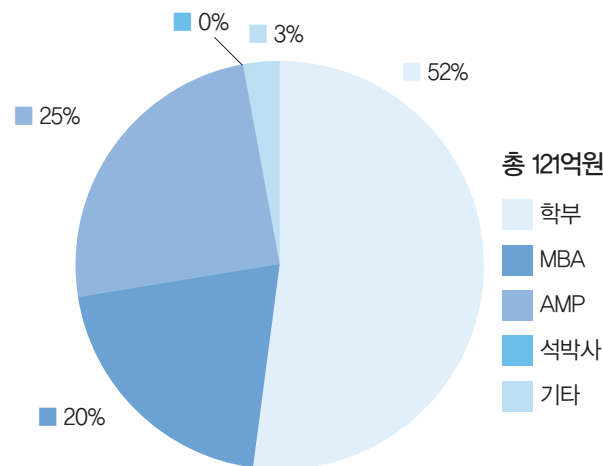
연세경영 건축 및 발전 기금 현황

지난 20여 년간 조성된 건축 및 발전 기부금의 개인 기부자 기여도를 볼 때, 학부 동문의 경우 총 782건의 기부를 하여 전체 개인 기부건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AMP 동문이 355건으로 약 22%, 그리고 MBA 동문은 241건으로 약 15%를 기여하고 있다. 전체 동문 숫자에 대비할 때, 약 3~4%의 동문이 건축 및 발전 기금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 및 발전 기부금의 입금액 기준으로 볼 때, 학부 동문이 52%인 약 64억원, AMP 동문이 25%인 약 30억원 그리고 MBA 동문이 20%인 약 24억원을 기여하고 있으며, 1억원 이상의 건축 및 발전기금을 희사한 기부자는 23명에 이른다.

약정금액



입금금액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연세경영 비전 선포식 및 건축 기금 조성' 행사에서 그동안 경영대 기금 조성에 크게 기여하신 김승제 회장, 김정수 회장이 각각 5억원의 건축 기금을 추가로 약정하며 뜨거운 연세경영 사랑을 나누었다. 또한 박상용 경영대학장은 경영대 최초 독립 건물의 성공적인 완공을 위해 연세경영인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며 1억원의 건축기금을 약정하여 지난해 말, 1천만원 건축 기금을 희사하였고, 이어 금년 초 본인의 Top Journal 논문 게재 장려금 1천5백만원 전액을 경영대학 건축 기금으로 기탁하였다. 박상용 학장은 연구 터전이 될 학교 건물의 신축을 위해 연구 성과 장려금을 기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했다. 이렇듯 1억원 이상의 건축 기금을 약정/기탁하여 경영관 건축의 주춧돌을 마련해주신 여러 기부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1억원 이상 입금해주신 기부자 명단을 이 자리에 소개한다.

건축 기금 1억원 이상 기부자 명단(2011년 2월 28일 입금 기준)

고병헌	경영 64, ㈜금비회장
김승제	MBA 84기/AMP 50기, ㈜이스타코 회장
김영숙	AMP 55기, 선일금고제작 대표이사 사장
김정수	경영 69, 제이에스앤에프 회장
김효준	MBA 68기, BMW Group Korea 대표이사 사장
남궁덕	AMP 57기, ㈜SR 건설 대표이사
박지원	경영 84,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서경배	경영 81,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사장
서정락	MBA 78기, ㈜장풍 회장
송영휘	MBA 85기, 미평그룹 회장
송 자	상학 55, 명지학원 이사장
심장식	경영 73, 화인캐피탈 회장
이관식	경영 66, 올림픽 CC회장
이기를	상학 48,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이동준	MBA 53기, 코리아 아트빌리지 회장
이두원	상학 58, ㈜한양철강 회장
이병무	경영 59, ㈜아세아그룹 회장
이재범	AMP 56기, ㈜대지철강 회장
(고)임익순	연세대 명예교수
장홍선	경영 58, ㈜극동유화 회장
정구현	KAIST 초빙교수, 연세대 명예교수
최도석	경영 70, 전 삼성카드 부회장
황재광	MBA 74기, 에프에스코리아 대표이사

신축될 경영관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유 공간	Atrium	120평	1개
	Conference Hall	85평(180석)	1개
	Trading Room	36평(60석)	1개
	Information Lounge	50평	1개
	도서실	120평(160석)	1개
	Study Lounge	110평	1개
	Roof Garden	245평	1개
	Board Meeting Room	51평	1개
	커리어 개발센터	54평	1개
학 부	초대형 강의실	60평(100석)	2개
	대형 강의실	50평(80석)	5개
	중형 강의실	25~35평(40~60석)	6개
	그룹 스터디 룸, 동아리 룸 등	4~6평	20개
MBA / AMP	대형 강의실	60평(80석)	1개
	중형 강의실	35~45평(60석)	3개
	Lounge	54평	1개
	Executive Lounge	45평	1개
	토의실	6평	8개
	고급 세미나실	17평	1개
석박사	PhD 연구실	35평(30석)	1개
	석박사 대형 강의실	30평(40석)	1개
	석박사 중형 강의실	20평(20석)	5개
	석박사 컴퓨터실	8평	1개
	행동실험 연구실	8평	1개
	석박사 도서실	70평(90석)	1개
	석박사 연구실	7평	20개
행 정 실	학장실	12평	1개
	부원장/부학장실	9평	3개
	행정실	132평	1개
	행정 회의실	11평	2개
	분야지원실	8평	5개
	경영연구소장실	7평	1개
	경영연구소 행정실	15평	1개
	경영연구소 세미나실	10평	1개
	특임교수실	7평	5개
	경영연구소 연구실	15평	1개
교 수	세미나실	20평	5개
	Break-out Room	12평	5개
	명예교수실	7평	2개
	교수연구실	7평	110개



공정적이고 진취적인 마음으로 이끄는 기부 활동

김승제(경영전문대학원 MBA 84기/AMP 50기, (주)이스타코 회장)



경영관 건축을 위해 15억원의 건축기금을 희사한 바 있는 김승제 (주)이스타코 회장은 지난 11월 22일 경영관 건축기금 조성 행사에서 5억원의 건축기금을 추가로 약정하며 그 자리에 모인 동문들에게 나눔의 본을 보였다. 충남 서천에서 태어난 김 회장은 3년간 고철을 판 돈을 모아 서울로 상경하여 중학교를 다녔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1학년 후배들을 가르치며 어렵게 공부하여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며 지난 시절을 회상했다. 이렇듯 배움과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는 김 회장은, AMP를 마

친 후 우리 경영전문대학원 MBA에 도전하여 2008년에 졸업을 했다. MBA 재학 시절, 만학도인 김 회장이 젊은 학생들에게도 쉽지 않았던 과제와 프로젝트를 솔선수범하며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 동료 원생들은 물론 교수들도 감탄을 했다는 후문이다. 김 회장은 IMF 국제금융위기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그 슬기로움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다는 덕담과 함께,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본인도 사업상 어려운 점이 많지만 힘들수록 함께 이겨내자는 뜻과 함께 '사랑한다, 연세경영'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경영관 건축에 힘을 보탠다고 한다.

제 7, 8대 AMP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김승제 회장은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말을 그냥 넘기지 않는 측은지심의 소유자다. 경영전문대학원 동문이었던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박강수 전임회장의 뼈뚫한 협회 살림살이가 애처로워 기부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협회를 돕기 시작하여, 현재 제 9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회장을 맡은 후 조직을 정비하고 '법질서 확립, 국민의식 선진화, 녹색생활 실천, 다문화 가정 지원' 등 구체적인 활동 목표를 세우며 '무엇을 하든 시작한 일이라면 제대로 해보자'는 각오로 본인의 사재를 동원하여 협회 활동에도 매진하고 있다.

김 회장은 또한, 125년 전 언더우드 박사가 '지금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기도했을 때, 그는 125년 후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2010 서울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만큼 그 위상이 높아질 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연세경영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다시 한번 헌신과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기부와 선교의 바탕 위에 세워진 연세의 근간을 되새기며 경영관 건축기금 조성에 참여하자고 그 자리에 모인 동문들을 독려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모교사랑을 실천하다

이종화(경영전문대학원 AMP 53기, 송담산업 대표, 전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이종화 동문은 2010학년도에도 어김없이 모교를 방문하여 건축기금 1천만원을 기탁하였다. 매년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여 의미 있는 기부의 손길을 나누고자 하는 이종화 동문의 행보는 2002년부터 시작되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9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동문은 자신이 사회 활동을 하는 동안 매년 조금씩 학교를 위해 기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많은 연세경영인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인생을 관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어떠한 삶이 보람된 삶일까 생각하다가 사회 봉사와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본인의 자취를 남기는 것이 가장 멋있게 인생을 살면서 작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에 기부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이 동문은 삶의 기쁨은 남과 함께 더불어 살고 그들과 함께 사회에 봉사함으로써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기부는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이종화 동문이 기부를 시작하게 된 사연은 매우 감동적이다. 2002년 이 동문은 경영전문대학원의 최고경영자과정(AMP)을 수강하던 중 중국에서 실시되는 AMP 해외 세미나에 참여하였고, 그 기간 중 70세 고회를 맞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영전문대학원장과 최고경영자과정 53기 원우들은 중국에서 조출한 파티를 마련하였다. 이에 크게 감동받은 이 동문은 자녀들이 고회를 기념하여 마련해준 1천만 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쾌척하였다. 마음은 있지만 학교를 쉽게 찾지 못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매년 7월이면 잊지 않고 학교를 찾는 이 동문의 연세경영 사랑은 따뜻한 나눔의 실천으로 회자되고 있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늘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이 동문은 지난 7월 7일 생일을 맞아 모교를 방문하였고, 손자 같은 학생들과 같이 한자리에서 20대에는 큰 꿈을 가질 것을 당부하였는데 이 사연이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면서 주요 일간지에 미담으로 게재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종화 동문의 기부 이야기는 KBS TV <동화-행복한 세상>을 통해 방영되어 시청자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Young 81’, 경영 81 동기회의 맨파워를 느끼다

경영 81 동기회



연세경영 81 동기회는 오랜 역사 속의 수많은 연세경영 동기회 중 그 우애가 남다르기로 소문 나 있다. 기존 입학생보다 두 배 이상의 신입생들이 입학한 연세경영 81학번은 많은 수의 인원으로 연세경영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이 있었지만, 그러한 걱정을 불식시키듯 양적인 면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을 배출했다. 송영길 인천시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사장, 권성문 KTB 증권 회장, 황성준 삼성증권 부사장, 지민호 에이스투자자문 회장, 임춘수 한국투자증권 부사장, 이동진/황재훈 연세대 교수, 박동우 중앙대 연극영화과 교수 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동기들이 정계, 재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자리에서 활약하고 있다.

81 동기들은 약 10여 년 전부터 동기회라는 딱딱한 이름 대신 언제나 81 학번 새내기 시절처럼 지내자는 의미의 ‘Young 81’이라는 이름을 새로 지었다. 지금도 1년에 두 번의 정기 모임과 부 정기적인 모임, 각종 경조사를 통해서 평생 친구로서 우정을 쌓

아가고 있다. 20~30대 젊은 후배들이 사랑하는 Facebook이나 Twitter 같은 인터넷 소통이 아닌 직접 얼굴을 맞대는 끈끈한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오고 있다. 연세 81학번 전체의 행사인 졸업 25주년 재상봉 행사를 위해 기부금을 조성하던 중, 2010학년도에는 경영대 신축 기금과 상경경영동창회의 블루 버터플라이 장학금도 모금하자는 결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80학번 선배들이 세운 첫 1억대 동기회 재상봉 기부금 기록을 깨고 2억3천여 만원의 기부금을 박상용 학장님께 전달했다. 지난 11월에 참석한 경영대 비전 선포식에서는 박상용 학장님의 연세경영 발전 계획 발표에 고무되어 2월에 개최한 ‘Young 81’ 모임에서 추가 모금을 진행하여 경영대학 신축 건물에 동기회 이름으로 강의실 하나를 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각자의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자신의 길을 걸어온 친구들이 지금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재산이 되고 있는 경영 81 동기회의 젊고 패기 넘치는 활약상을 기대해본다.



참된 기부의 미학을 나누다

2010년 9월 29일 연세경영 장학금 수혜자들을 초청해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고, 동문들의 후배사랑과 기부의 미덕을 알리는 '제1회 경영대학 장학생의 밤' 행사를 대우관 각당헌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는 장학생들에게 연세경영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자신들이 받은 혜택을 감사하고 향후 적극적인 기부자로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도 사후관리를 거의 하지 않는 국내 대학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학자금 고액 후원자인 김낙찬 (주)현재어학원 대표이사(AMP 67기)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 바람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겸손의 미덕이 시작된다. 부를 쌓더라도 베푸는 기쁨을 아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21대 상경·경영동창회장(경영 69, (주)제이에스앤에프 회장)은 “장학금의 혜택을 누려도 원 기부자에게 보답할 필요는 없다. 졸업 후 사회에서 성공해서 학창 시절 선배로부터 받은 것의 감절만 후배에게 돌려주면 된다”고 당부했다. 연세대 경영대와 상경대는 동문 1명이 하루 1천원씩 기부하는 기금으로 후배들에게 전액 장학금과 교환학생 생활비를 지원하는 ‘블루 버터플라이’ 장학금 조성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핫도그에 담은 연세경영 응원의 메시지

2010년 9월 11일 백양로에서 열린 연고전 폐막제에서 박상용 학장이 요리사 복장을 차려입고 핫도그를 직접 만들어 학생과 동문들에게 나누어주는 연세경영 동문한마당 이벤트를 실시했다. 경영대학 교직원들과 Global MBA 학생 및 학부생 자원봉사자들은 강의실에서 배웠던 'Operation Management'의 현장 실습이라도 하듯 각각 맡은 역할 별로 손발을 맞추어 수제 핫도그를 만들었다.

이날 핫도그 만들기에 참여한 연세경영인들은 연고전 응원의 열기가 채 식을 겨를도 없이,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의 핫도그 제작 컨베이어 벨트를 설 새 없이 가동시켜 오랜 만에 모교를 방문한 동문 및 동문 가족과 학생들에게 사랑과 정성이 깃든 수제 핫도그 1,500개를 제공하며 흥겨운 동문마당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사랑한다, 연세경영!

연세경영이 세계적인 비즈니스 스쿨로 도약하기 위해 경영대학의 비전을 공유하고 경영관 건축기금 조성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 행사는 연세경영인 화합의 장인 동시에, 전문화된 행정 시스템과 최첨단 교육·연구 시설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혁신, 세계적 수준의 연구, 국제화에 대한 비전을 동문들과 공유하는 자리였다.

2010년 11월 22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연세경영 비전을 공유하고 경영관 건축기금 조성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2015년 연상 100주년을 앞두고 ‘사랑한다 연세경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이날 행사에는 김한중 총장을 비롯하여 송자 12대 연세대 총장(현 명지학원 이사장), 김기영 명예교수(현 광운대 총장), 김정수 21대 상경·경영대학 동창회장(제이에스앤에프 회장), 이동준 경영전문대학원 총동창회장(코리아골프 앤 아트빌리지 회장), 윤은기 경영전문대학원 MBA 동창회장(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등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동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인 손범수 동문(경영 82)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박상용 경영대학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2015년까지 연세경영을 세계 50대 비즈니스 스쿨, 2020년까지 세계 30대 비즈니스 스쿨로 끌어올린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교수 비율을 15~20% 수준으로 올리고, 전문화된 행정 시스템과 최첨단 교육·연구 시설을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혁신, 세계적 수준의 연구, 국제화를 이루어내겠다는 계획을 동문들과 공유했다. 김한중 총장은 “혼자 걸으면 길이 되고 여럿이 걸으면 역사가 된다”며 연세경영 새 역사 창조에 동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송자 이사장은 “일류 비즈니스 스쿨은 동문들이 만들어나가



는 것이며, 교수들도 모금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랑한다, 연세경영’을 제창하며 건배를 제의하였다.

연세대 경영대학 최초의 독립 건물이 될 신축 건물은 현재의 용재관 부지에 2013년 새롭게 태어날 예정으로, 신축 건물의 경과 보고와 계획에 대한 박상용 학장의 브리핑 후 동창회장들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이동준 MBA 총동창회장은 “왕성한 교육열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만큼 우수한 교육 인프라 구축의 기반이 되는 건물 신축을 위해 동창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윤은기 MBA 동창회장은 “교육은 개인의 운명을 넘어, 기업과 국가의 운명을 바꾼다.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신축 건물에 동참하는 것은 더없는 보람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또한 박상용 학장은 동문 멘토링 행사를 통해 연세경영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김승제(MBA 84기 2007, 이스타코 회장) 동문과 이재범(AMP 56기, 대지철강 회장) 동문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액자를 전달하였다. 이 그림은 연세대 설립자인 언더우드 선교사를 조선을 향한 희망을 품고 태평양의 밤하늘을 건너온 최초의 독수리로 표현한 것으로, 일러스트레이션 작가 이성표 선생의 작품이다. 경영대학은 이 작품 액자를 300개 한정판으로 제작하여 향후 경영관 건물 신축에 도움을 주는 분들에게 감사품으로 증정할 예정으로, 그 1호와 2호가 이날 행사장에서 증정되었다. 또한 경영관 건축에 100억원의 기부금을 희사한 서경배 동문(경영 81,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사장)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일러스트레이션 그림의 원본을 증정했다. 서경배 동문은 재학 시절을 회상하며 송자 교수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시며, 연세경영에서 배우는 동문은 프로세스 중인 공정품이지만, 졸업 후 세상에 나가 완제품이 되었을 때, 학교에 꼭 보답하고 후배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경영관 건축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연세경영 사랑의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상용 경영대학장은 “동문들이 모교에 대해 더욱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수와 직원들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동문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반드시 세계 30대 비즈니스 스쿨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밝혔다.



Underwood's Prayer

“주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구절을 언더우드의 기도문에서 읽었을 때, 나는 19세기 말 조선의 먹물 같은 밤하늘이 떠올랐다. 그는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조선 땅에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기도했으나, 오늘 그의 기도는 온전히 응답되었다. 언더우드는 그 옛날 우리를 향해 태평양 바다 위를 날아온 최초의 독수리이다. 그가 가슴에 품은 것은 캄캄한 조선의 밤하늘이 아니라 별빛 초롱초롱한 태평양의 밤하늘이다. 미래의 모든 시간을 머금은, 우주 같은 비전이다. 그의 소망은 오늘, 그대로 아니 더 크게 이루어졌다. 연세대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수많은 독수리들을 비상시켰다. 그 독수리들의 아버지, 최초의 광활한 비행을 결단한 언더우드의 보석 같았던 믿음과 웅대했을 기상을 생각한다.

2010년 11월, 이성표

일러스트레이터 이성표

홍익대 시각디자인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중앙일보 출판부 미술기자를 거쳐, 동서울대학 광고디자인과 교수,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겸직교수를 지냈다. 그의 그림은 간결하고 부드러운 터치로 텍스트의 핵심을 정확히 드러낸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근 작품집 <이성표>에 이어, 캐나다 로키에서 2년간 가졌던 안식년 이야기를 쓴 에세이집 <런치타임>을 출간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한편,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교에서 ‘내 목소리로 말하기’를 강의한다.

※독수리 액자를 건축 기금 1천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증정합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게 듣는 졸업식 Commencement Speech 졸업은 또 다른 의미의 출발 새로운 졸업식 문화 창출

2011년 2월 28일 대강당에서 개최된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은 2010년 졸업식부터 시작된 세 가지 전통에 따라 진행되었다. 세 가지 새로운 전통이란 졸업 축사(Commencement Speech)와 졸업식 참가 신청(RSVF)에 따른 지정좌석제, 단상에서 개인별 졸업장 수여를 말한다. 단과대학 졸업식으로서의 이례적으로 전체 졸업생 632명의 66%인 422명과 친지들이 대강당을 가득 채운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뜻깊은 졸업식이 진행되었다. 박상용 학장은 인사말에서 1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1919년 3월의 연희전문학교 상과 첫 졸업식을 언급하며,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율기 8장 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미래도 이와 같기를 바란다’며 93번째 맞는 연세경영의 졸업식에 대한 감회를 나누며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뒤이어 졸업축사 연사로 초청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창업정신과 윤리경영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1세대 자수성가 CEO답게, ‘공정이 결작을 만든다’라는 자신의 저서명을 주제로 미래 경영자를 꿈꾸는 졸업생들에게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과 도전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윤회장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이지만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뜻대로 되는 게 세상”이라며 끊임없는 도전의식을 함양할 것과, “살아 있는 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당연하니 즐겁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하면



〈Commencement Speech 감사 선물로 전달된 윤석금 회장 인물 모형〉



그게 행복이다”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졸업생들에게 주문했다. 윤석금 회장은 졸업을 맞는 연세경영인들에게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미래를 짊어질 큰 인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세경영 홍보대사단 BizYON(비즈연)은 윤석금 회장의 축사 전 순서로, 윤 회장의 일생을 함축적으로 기지 있게 표현한 윤석금 회장 소개 동영상을 제작하여 그 자리에 모인 졸업생과 학부모 및 내빈들로부터 큰 갈채와 주목을 받았다. 한편 학교는 특별히 제작된 윤석금 회장의 인물모형 선물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10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는 졸업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금을 조성하여 신입생들에게 자신들의 후배 사랑 마음을 담은 졸업 기념품을 전달하는 내리사랑의 나눔 문화, 졸업기부 - Class Gift를 도입하여 학부 신입생들에게는 졸업하는 선배들이 남긴 메시지가 담긴 26종의 추천 도서가, MBA 및 석박사 과정 신입생들에게는 개인 이름이 새겨진 멋진 볼펜이 증정되고, 동문 선배들은 졸업생들에게 품위 있는 MCM 명함 지갑을 선물했다.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졸업생들은 호명에 따라 한 명씩 단상에 올라가 졸업증서와 동문 선배들이 준비한 졸업선물을 전달받았으며 재학시절 많은 시간을 함께한 교수들의 축하를 받으며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단상을 내려갔다. 학부 현예슬 졸업생(경영 07)은 “대학원에 진학하기 때문에 졸업이 실감 나지는 않지만, 졸업기부 - Class Gift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뻐다. 학교가 정말로 많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전했고, 전한나 졸업생(경영 05)은 “졸업식이 진행되기 전 조용히 흐르던 응원가에 가슴이 찡했다”며 “연세인이라는 소속감을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또 MBA를 마친 강병구 졸업생은 “직장 생활과 주말 MBA를 병행하느라 힘들었지만 88기 동기들과 아내 덕분에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1년 2월 학위수여식을 통해 경영학 박사 14명, 석사 39명, MBA 193명, 그리고 학사 386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Class Gift



연세경영 내리사랑 캠페인 Class Gift

동문 선배가 졸업생에게, 졸업생이 신입생에게,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릴레이 기프트 행사가 2011년 2월 그 첫발을 내딛었다. 연세경영의 끈끈한 동문애를 느낄 수 있는 'Class Gift' 행사는 새로운 기부 문화의 일환으로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글로벌 리더로서 연세경영인들이 갖출 나눔의 미학을 실천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연세경영은 2010년학년도 졸업식부터 'Class Gift'라는 이름으로 졸업의 또 다른 의미를 새기고 나눔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기부 문화의 첫 걸음을 시작했다. 'Class Gift'는 2010학년도 졸업생 선배들이 2011학년도 신입생 후배들에게 연세경영인으로서의 프라이드와 열정을 전달하는 선물을 증정하는 것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졸업생들이 소정의 금액을 기부하고, 선물 재원을 초과하면 '2011 Class Gift'라는 이름으로 경영대학 발전기금에 기부된다. 또한 새로운 출발선에 선 졸업생들에게 윤리적인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기념품이 동문 선배들의 후원으로 전달되었다.

이 행사는 학부/대학원/MBA 졸업생 289명이 참여하여 총 860여 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하여 새로운 기부 문화의 틀을 마련했다. 졸업생 선배들이 신입생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선정한 26종 도서 341권은 선배들의 메시지를 담아 새내기들에게 전달되었고, MBA와 석박사 과정의 신입생 290여 명 역시 선배들이 남긴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신입생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멋진 볼펜을 입학 선물로 받았다.





후배에게 주는 졸업생의 메시지

권오승(경영 03) 영화 '박하사탕'에서 주인공 설경구가 외친 한마디, "나 돌아갈래~". 졸업생이 외치고픈 한마디와 같네요. 신입생으로 들어온 후배님들, 자신과 연세경영의 건승을 위한 멋진 새 출발을 지원합니다.

김득훈(경영 07) 자랑스러운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 들어온 신입생 후배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학교 생활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길을 대신 찾아주지 않으며 거기에 따른 책임도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주관에 확신을 갖고 여러분에게 열린 수많은 기회를 스스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양지훈(MBA 88) 덕승재(德勝才), 덕이 재주를 이긴다. - 청나라 강희제 "힘으로 지키는 자는 홀로 영웅이 되고, 위엄으로 지키는 자는 한 나라를 지킬 수 있지만, 덕으로 지키는 자는 천하를 세울 수 있다." 지식과 덕을 쌓을 수 있는 곳. 연세 경영!!!

이민형(경영 03)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도 좋지만, 폭넓은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따뜻하고 넓은 시야를 보유한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장수한(경영06) 최고의 엘리트 인재인 연세경영인이 된 후배님을 축하합니다. 고전을 많이 읽고 깊이 있는 통찰력과 사고력을 기르십시오. 연세경영이라는 좋은 발에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한 창조와 포용으로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선도하는 섬김의 리더로 열매 맺길 바랍니다.

조혜련(MBA 88) 담대한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당신이 MBA 주인공입니다. 쉬지 말고 주저 없이 공부하고 학우들과 즐기세요. 미래의 자산이랍니다. 필요하면 선배들에게 연락하세요. 우리는 한 배를 탄 Yonsei MBA 멤버랍니다.

차은경(경영 06) 신입생 때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세요. 남들이 하라고 해서, 남들이 다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신을 믿고 하고 싶은 것을 하다 보면 어느새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후배님, 당신이 저의 후배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최성욱(경영 04)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꿈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세요. 또한 그 누구의 꿈도 비웃지 마세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모두 아름답습니다. 인생의, 10년의, 1년의, 1

주일의, 그리고 매일매일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연경인이 되길 바랍니다.

한재용(경영 04) 대학은 시대정신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시대가 과연 옳은지를 고민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다는 것은 생각보다 참 무서운 것입니다. 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학은 결코 직업학교가 아닙니다. 큰 공부를 성공적으로 이루시길 바랍니다.

홍유빈(경영 07) 지난 4년간 저는 연세경영 덕분에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웠던 전공 수업들, 두 번의 uGET과 국제경영트랙 GMT, 그리고 경영대학 홍보대사 BizYON 활동 모두 제 인생에 있어 소중한 경험들이었습니다. 제가 연세경영에서 받은 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많이 후배님도 배우고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철상(경영 02) 신입생 여러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한 것은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수업의 질이나 다양성에 있어서 연세경영은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이를 토대로 방학 때 다양한 경험을 한다면 여러분의 꿈에 근접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선택, 연세경영 신입생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졸업생에게 보내는 동문 선배 메시지



조승희(경영 84, JP Morgan Chase Bank 글로벌 기업 금융부 상무)

저는 연세경영인임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왔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여러 선배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들도 성공적인 경력개발과 보람 있는 삶을 가꾸어가시는 데 동문 선배 간의 멘토링과 네트워킹이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으며, 졸업생들이 “클래스 기프트”로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고 느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염규현(경영 02, MBC 보도국 사회2부 기자)

세계적인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복잡한 수학공식들이 춤추는 그의 이론도 결국 바탕에는 ‘모든 일에는 그 대가가 따른다’는 당연한 진리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클래스 기프트”는 졸업생들이 정성을 모아 신입생들에게 세상에서 만나기 힘든 이 ‘공짜 점심’을 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점심 메뉴가 화려하거나 비싼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연세경영의 끈끈한 정을 확인하는 기회만 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졸업생들이 선배들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을 다 돌려주지야 못하겠지만 “클래스 기프트”를 통해 그 애뜻한 마음만이라도 꼭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후배들도 4년 뒤, 지금의 ‘공짜 점심’이 더 이상 ‘공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연세경영의 내리사랑도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2011 Class Gift 참여자 명단

구 분	이 름																
학 부	강지윤 06경영	권오승 03경영	김균 04경영	김동욱 03경영	김득훈 07경영	김맑음 05경영	김민지 04경영	김민지 06경영	김범준 02경영	김수범 04경영	김수정 06경영	김영익 03경영	김영준 05경영	김용석 06경영	김옥렬 03경영	김윤진 06경영	
	김은용 04경영	김은우 06경영	김인애 04경영	김일우 04경영	김재혁 03경영	김진우 06경영	김철웅 03경영	김택균 03경영	김현선 05경영	김형규 04경영	노우성 03경영	민경실 06경영	민윤홍 02경영	박경홍 03경영	박래현 03경영	박승환 04경영	
	박영진 01경영	박정민 06경영	박진수 06경영	박현식 05경영	박해민 07경영	백영민 04경영	서유호 03경영	서정화 01경영	서진 06경영	서진영 03경영	손인석 03경영	손정균 05경영	송권영 04경영	송수길 07경영	송연화 06경영	송재혁 03경영	
	송현석 03경영	심규환 05경영	심요한 04경영	양우현 04경영	왕태영 04경영	우영균 04경영	유원석 07경영	유정민 04경영	유진무 04경영	이강석 07경영	이민형 03경영	이영준 04경영	이유안 05경영	이의철 05경영	이종원 05경영	이지혜 06경영	
	이한술 03경영	이호원 03경영	이홍열 03경영	이황신 04경영	이훈성 04경영	이힝찬 04경영	임동섭 04경영	임승혁 04경영	임영룡 04경영	임현정 04경영	장수한 06경영	장재현 03경영	장한나 05경영	정다운 03경영	정상용 05경영	정선오 05경영	
	정지수 05경영	조경호 03경영	조성제 05경영	주선경 03경영	진두환 04경영	진시몬 07경영	차문수 01경영	차우석 04경영	차은경 06경영	최성욱 05경영	최수희 06경영	최 신 02경영	최영우 02경영	최지은 05경영	최혜림 07경영	하재성 03경영	
	하진규 04경영	한재웅 04경영	현예슬 06경영	홍세화 07경영	홍유빈 07경영	황철상 02경영											
	석박사	조경엽	김영대	윤영수	채연주	황용희	유성훈	이은곤	장운욱	황미진	모배권	김상일	옥지웅	이기현			
		라미령	이정환	임명서	정슬기	구현정	김지연	리은경	박주진	박태훈	이아현	이재성	이청영	정승원			
	MBA 88기	강민정	강민정	강선자	강현명	고형석	권윤선	권정민	금우현	김경훈	김규진	김기해	김기현	김기호	김나리	김남기	김대현
		김도균	김동길	김미완	김민	김상윤	김선배	김선영	김선웅	김성준	김성준	김성환	김수환	김응수	김재환	김정훈	김중수
		김주관	김주연	김지수	김진규	김태형	김태환	김태훈	김호웅	남민석	문경신	문선영	문희정	민경의	박경준	박민숙	박상언
		박석환	박성용	박성조	박성주	박수범	박영호	박원준	박은주	박장규	박준석	박지원	박진형	박현우	박홍식	백선행	백성현
백용해		사철기	서윤지	서재식	석상규	성대형	성백준	손호균	송경희	송호진	신민승	신봉규	신원정	신종선	신진섭	신진호	
심성후		안영열	양원진	양지훈	엄명섭	오승엽	오우진	오장환	오태엽	원경연	원영웅	유수경	유영길	윤석주	이경범	이경주	
이남진		이동욱	이동준	이민아	이병진	이상우	이상원	이상현	이생재	이성민	이소라	이연학	이영상	이영신	이이진	이장훈	
이재민		이정득	이정숙	이종성	이진일	이 철	이태연	이태호	이형규	이홍준	임계영	임동수	임선아	장은정	장재영	장희영	
정우열		정의선	정재웅	정재형	정재훈	정창현	정현수	조영상	조영수	조지연	조혜련	진태원	차정희	최기호	최서룡	최석훈	
최승빈		최우일	최우제	탁연정	한경호	한덕연	한승준	허민희	허 용	허 준	황경곤	황병필	황일환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BASIC PROGRAM				
구 분	① 독수리	② 백양	③ 청송	④ 무악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공 통	기념품 증정, 『연세소식』 · 학교달력 발송			
명 예	감사장(패) 수여			백주년기념관 명판 부착
교 육	상남경영원, 사회교육원, 전산원 수강료 20% 할인	자녀 기숙사 입사 우선권 도서관 열람권 연세어학당 수강료 20% 할인	부속 교육기관 수강료 30% 할인, 도서대출권	
의 료	건강검진료 30% 할인		진료비 10% 할인 건강진단권 1매	진료비 20% 할인 건강진단권 2매 후원자 전용창구 이용
생 활	교내 학술행사 및 문화행사 초대	동문회관 결혼식장 · 장례식장 이용료 20% 할인		동문회관 결혼식장 · 장례식장 이용료 30% 할인

PREMIUM PROGRAM		
구 분	① 진 리	② 자 유
	1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공 통	기념품 증정, 『연세소식』 · 학교달력 발송	
명 예	강의실, 실험실 등 고유 명칭 부여	건물 명칭 부여
교 육	부속 교육기관 수강료 50% 할인 특수대학원 등록금 50% 할인 특수대학원 입학 우대	부속 교육기관 수강료 무료 특수대학원 등록금 무료
의 료	진료비 50% 할인 건강진단권 4매, 매 2년마다 평생	진료비 전액 감면(배우자는 10년간)
생 활	동문회관 결혼식장 · 장례식장 이용료 50% 할인 총장 초청 만찬	동문회관 결혼식장 · 장례식장 이용료 무료, 총장 초청 만찬

Operational Highlights

기금 현황

(단위 : 억원) 학년도 기준 (Mar ~ Feb)

	2010	2009
전기 이월금	218	143
기금 수입	57	106
기금 인출	(14)	(31)
당기 잔액	261	218

주요 지표

			학년도 기준 (Mar ~ Feb)		
Undergraduate Program			MS/Ph.D Program		
	2010	2009	2010	2009	
지원자수	5,067	6,736	지원자수	520	493
합격률	14:1	16.4:1	합격률	5.7:1	5:1
재학생수	1,847	1,734	재학생수	281	282
외국인학생 비율	6.4%	6.3%	외국인학생 비율	24.6%	24.1%
교환학생 파견수	122	166	영어강의 비율	7.8%	7.9%
영어강의 비율	34.0%	35.5%	1인당 장학금액	6,215,068원	6,511,759원
1인당 장학금액	2,400,466원	2,579,330원	등록금 대비율	67.2%	72.2%
등록금 대비율	31.2%	33.5%			
MBA Program			Executive Education		
	2010	2009	2010	2009	
지원자수	765	1,168	위탁과정 수	21	14
합격률	2.9:1	4.8:1	모집과정 수	9	8
재학생수	452	423	재학생수	1,020	797
외국인학생 비율	9.1%	7.6%			
영어강의 비율	30.5%	35.1%			
1인당 장학금액	1,707,479원	2,225,296원			
			AMP		
			2010	2009	
			지원자수	109	130
			합격률	1.33:1	1.30:1
			재학생수	84	98

Faculty	2010	2009
전임교원	68	63
신입교원	7	3
퇴직교원	2	1
여성교원	7	4
외국인 교원	8	5
객원교원	7	4
겸임교원	24	23
연구교원	2	2

Staff	2010	2009
행정전담 직원	18	14

연세경영 Leadership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학장 겸 원장	박상용
부원장	서길수
교학부학장	엄영호
기획부학장	이호근
석박사 주임교수	문두철
마케팅 분야 주임교수	김영찬
매니지먼트 분야 주임교수	윤세준
O.D.I 분야 주임교수	이호근
재무 분야 주임교수	신진영
회계 분야 주임교수	이경태
Global MBA 주임교수	손재열
Corporate MBA 주임교수	임 일
Finance MBA 주임교수	한재훈
Executive MBA 주임교수	이경태, 양혁승
AMP 주임교수	강영기

상남경영원

원장	손성규
부원장	허대식

경영연구소

소장	김인준
부소장	오홍석

연세경영 기부자 명단

학부

1941

(고)임정수

1946

방우영 이기을

1950

황일청

1954

박봉룡

1955

송 자

1957

김창덕

1958

이두원 장홍선 정은섭

1959

강형창 송태연 이병무 이일규 정석주

1960

곽용태 안택수 한 유
60 동기회

1961

정 소 최병우
61 동기회, 61 재상봉

1962

강봉섭
62 재상봉

1963

오종곡

1964

고병현 남백현 류경한 박예상 서요원 양동훈 정영우
정중화 최영준

1965

김홍건 신승훈 정동학 정병철

1966

김형배 이관식 이낙토 황병기

1967

김재후 김준석 백상태 안문수 이명우 이징훈 주인기

1968

나종철

1969

김봉기 김성운 김정수 노병용 라제훈 박상용 박영진 이영준
이재익 이찬형 진용균 차현덕

1970

강영성 권승희 김성수 김홍렬 문관형 배호원 신용인 심경섭
정만원 정수원 최도석

1971

김학수 남영조 오광성 정동기

1972

권혁조 김계동 김태현 민경춘 박상홍 오종열 윤안도 윤재인
이만수 지대섭 72 재상봉

1973

김동배 김 윤 만철용 박현준 심장식 이기성 이정조 한영재

1974

허행술

1975

김규명 김도성 김영진 김홍기 윤용암 임복순

1976

고병순 권승화 박영렬 배기룡 우덕기 최정훈 허용석

1977

강성민 김만수 김세환 김진홍 박성래 안용찬 윤경식 전현철

1978

김상호 김인환 김종태 라제건 손성규 여규현 유상호 이호영
임종환 정현호 홍선주

1979

김영현 신동엽 신성호 이희환 전찬영 조경엽 홍성수

1980

김기설 김덕수 김동진 김명철 김무곤 김무환 김범희 김소희
김신형 김영조 김윤주 김재요 김재철 김중배 김중수 김진우
김형대 김희곤 남기윤 박래수 박상인 박영암 박용호 박인수
박종만 박종환 박형진 서문식 서상인 서인교 서홍원 서 훈
신승호 신용삼 신원무 신윤식 신현도 안석호 안종석 양두승
양생환 오세진 오태경 우재룡 유창복 윤상우 윤중현 이명영
이민찬 이병락 이상언 이수영 이양수 이영면 이원태 이준호
이중희 이태종 이흥수 이희명 인재원 임병천 임성준 임진주
임현문 전양우 정덕용 정호영 조명호 진형보 최 민 최원욱
최임정 최재유 최정호 최종원 하상택 하철민 한동엽 홍양표
홍준배 황수성 황이석 황지용

학부

1981

강경호 강기철 강상선 강신태 고광수 권성문 권희전
 김정 김경목 김광석 김기완 김동소 김동일 김만동
 김명환 김병철 김상구 김성희 김영석 김용원 김용호
 김우한 김재우 김정렬 김종우 김창수 김한용 김형기
 김 환 김황래 문기훈 박동희 박승필 박신규 박윤하
 박중환 박준범 박찬열 박태근 배중열 백승엽 서경배
 서영포 서지수 석중훈 선우대룡 성우석 송기생
 송성희 송영길 송용태 송윤근 신금석 신영철 신태석
 신현기 안익준 양동기 양정원 양철준 예정호 우정미
 유동수 유영균 유영선 윤경선 윤 석 윤여환 윤재근
 윤재영 윤종진 윤춘선 이광국 이노덕 이동진 이명섭
 이민중 이백수 이병휘 이부근 이상엽 이상준 이상현
 이선우 이성훈 이승영 이승현 이용호 이원재 이은경
 이재청 이재혁 이정선 이주현 이증용 이태호 이향렬
 임중규 임춘수 장동훈 장석준 장승권 장영우 정계채
 정광식 정 권 정명규 정병규 정정철 정창식 정택진
 정 현 조민준 조옥래 조정현 조한준 지민호 지재천
 진태봉 최기호 최성식 최성진 최양수 최영수 최용석
 최재우 최정욱 최정호 최태균 하상현 한성덕 한중수
 한현주 함중욱 홍태호 황성준 황일환 황재훈

1982

강 원 광재철 김요대 김정우 박영숙 백한중 변재팔
 양일수 윤 찬 임건신 이갑재 이경호 정희구

1983

구재상 권현철 김경배 김경휘 김광오 김대환 김명길
 문희성 손석우 송인수 송하장 신현안 오동익 이길호
 이지만 임인순 정우철 조승희 최희규 허찬희
 83 동기회

1984

김병환 김점표 김종선 라현주 류승권 박지원 박진섭
 서진석 손원범 이시형 이영섭 이원섭 정성래 정영동
 정우철 조승희

1985

김병환 김점표 김종선 라현주 류승권 백창현 송인걸
 유영근 윤여천 이문봉 장석조 전성기 정희철 최문호
 홍석주

1986

가중현 강창주 권상원 김승우 김완식 김정욱 김상운
 도현수 남상환 박경중 박대준 박준하 박진원 박천택
 배환모 신원정 심미성 안경민 연철흙 위진오 이문일
 이재욱 임병훈 장석룡 장승호 전철희 정기봉 정대형
 조재우 현정환
 86 동기회

1987

김대균 박희영 이상도 김승우 김완식 김정욱 홍득기 황석연

1988

김연봉 김병목 박성호 배운환 서현택 양종모 정도영 정성원
 최재용 한상현 한중섭

1989

박종원 손영삼 윤무영

1990

김진호 박성조 박용근 박희성 신승철 양재호 장영현 조재성
 최재범

1991

고성진 오원석 오종진 임양록 정성호 조성출

1992

강성태 구연찬 백승원 윤대희 이도신 조성출 진선근

1993

강조원 권혜진 김율리 신승일 윤진원 이수빈 이창현 추연욱

1994

석희병 손상국 이은곤 최병해

1995

박지만

1996

성원엽 양희준

1997

김성배 김한준 박정수 성원엽 양희준 유종욱 최거현 정연중
 황준호

1998

김주홍 박미경 박유라 연치상 오세호 유홍서 윤동일 이수진
 임소연

1999

김흥기 김희은 안태석

2000

김혜일 박민희 성용훈 오윤진 윤희목

2001

서정화 오동규 차문수

2002

고양중 김범준 노진미 민윤홍 최 신 최영우 황철상

연세경영 기부자 명단

학부

2003

권오승 김동욱 김육렬 김재혁 김철웅 김택균 노우성
 박경홍 박래현 박인준 서유호 서진영 손인석 송재혁
 송현석 이민형 이한솔 이호원 장재현 정다운 정민지
 조경호 주선경 최 은 하재성

2004

김 균 김민지 김수범 김은용 김일우 김형규 박승환
 백영민 송권영 심요한 양우현 왕태영 우영균 유정민
 유진무 이영준 이황신 이훈성 이힘찬 임동섭 임승혁
 임현정 차우석 하진규

2005

김갑음 김영익 김영준 김현선 박현식 손정균 신봉철
 심규환 이유안 이은호 이의철 이지수 장한나 정상용
 정선오 정지수 조성제 최지은

2006

강지윤 김민지 김수정 김용석 김윤진 김은우 김진우
 민경실 박정민 박진수 서 진 송연화 이지혜 장수한
 차은경 최수희 현예슬

2007

김득훈 박혜민 송수길 유원석 최혜림 홍유빈

2009

김지영

2010

이태우

MBA

1970

홍재호

1971

정종모

1978

유정근 이동준

1981

정달영 함종욱

1986

이중보

1987

송승훈 신상인

1989

장유호

1990

문승동 정병수
 MBA 52기

1991

이순식

1993

윤수정

1994

김영만 오용욱 윤태식 정동학

1995

김송규 설태환 송갑호

1996

김진우

1997

이정빈

1998

김효준

2000

최인우

2001

김석현 김장도 김재곤 오현정 이준태 이필수 정찬구 황의준
 황재광

2002

김명한

2003

김순옥 서정락 송종현
 MBA 78 원우회

2004

김현중 손영준 송영휘 임용빈

2005

강성호 김병태 김상엽 박병채 오재갑 이기석 이준근 이해원

2006

김대영 신승엽 최상우

2007

김승제 김태환 정세영

MBA

2008

신태용 조석준 최금화
MBA 87 원우회
MBA 87 야간통합과정

2009

강민정(2)	강선자	강현명	고형석	권운선	권정민
금우현	김경훈	김규진	김기해	김기현	김나리
김남기	김대현	김도균	김동길	김미완	김민
김선배	김선영	김선웅	김성준(2)	김성환	김수환
김응수	김재환	김정훈	김종수	김주관	김주연
김진규	김태형	김태환	김태훈	김호용	남민석
문선영	문희정	민경의	박경준	박민숙	박상언
박성용	박성조	박성주	박수범	박영호	박원준
박장규	박준석	박지원	박진형	박현우	박홍식
백성현	백용해	사철기	서윤지	서재식	석상규
성백준	손호균	송경희	송호진	신민승	신봉규
신종선	신진섭	신진호	심성후	안영열	양원진
엄명섭	오승엽	오우진	오장환	오태엽	원경연
유수경	유영길	윤석주	이경범	이경주	이동욱
이민아	이병진	이상우	이상원	이상현	이생재
이소라	이연학	이영상	이영신	이이진	이장훈
이정득	이정숙	이종성	이진일	이철	이태연
이형규	이홍준	임계영	임동수	임선아	장은정
장희영	정우열	정의선	정재웅	정재형	정재훈
정현수	조영상	조영수	조지연	조해련	진태원
최기호	최서룡	최석훈	최승빈	최우일	최우제
한경호	한덕연	한승준	허민희	허용	허준
황병필	황일환				황경곤

Ariunbold Gombojav

석박사

1988

김대엽

1990

임근구

1994

김진영

2003

김영대 윤영수

2004

서응교 유현석 채연주 황용희

2005

유성훈 이은곤 장운욱 황미진

2006

모배권

2007

김상일 옥지웅 이기현

2008

라미령 이강석 이남진 이정환 임명서 정슬기

2009

구현정 리은경 박주진 박태훈 이아현 이재성 이철열 정승원

AMP

1977

AMP 4기

1979

정장현

1981

오영철 이재범

1982

조길용

1983

김용운

1984

손영식

1986

김영운 이정익 황병주

1988

김태욱

1991

김석기 박순배

1992

전용배 김재환

1994

이두철

1995

이병극

연세경영 기부자 명단

AMP

1996

전상표

1997

김순무 박상진

1999

원제철

2000

김승제
AMP 49기

2001

김영호 박동출 방일석 변기욱 최광룡
AMP 51기
AMP 52기

2002

방동원 배영표 안중윤 이중화
AMP 53기
AMP 54기

2003

김영숙
AMP 55기
AMP 56기

2004

구재범 남궁덕
AMP 57기
AMP 58기

2005

고문중
AMP 60기

2006

강경아	강신욱	강희성	고종오	공지우	곽동관	구연주
권오준	권옥술	김남일	김대현	김동수	김미경	김미리
김민철	김영복	김영중	김영철	김원배	김월용	김 윤
김윤춘	김재근	김재원	김재호	김정길	김정욱	김주환
김창환	김채득	김태영	김학수	남궁광	남 인	남정신
노봉한	노재기	문기웅	문인식	박동남	박명규	박복수
박상준	박상철	박영수	박인식	박인식	박종출	박태영
박현만	박홍득	박홍득	백진기	변정권	서덕원	서상진
서승도	서유열	서진렬	신동기	신동범	신승권	신춘균
신현철	심경섭	심재호	안연희	여은구	오일근	유민근
유영득	윤영수	윤철주	이금기	이기철	이노중	이래진

이상경	이상하	이상혁	이승구	이승재	이재운	이재웅
이정희	이종대	이종대	이종항	이주혁	이주형	임각균
임노원	장은호	정기범	정동진	정두환	정성수	정인성
정인호	정희원	조남욱	조명현	조상현	조용국	조인식
조중일	조현국	조현만	주대준	주도식	주성철	차의주
최범순	최용순	최원호	최을수	최종원	최철규	편석훈
하근철	한병진	한종률	허덕신	허 준		

2007

고규영	구분담	김 석	김성철	김순길	김영광	김영주
김우찬	김원규	김익배	김정훈	김중하	김준현	김철환
김태암	김현규	김홍동	김희열	나동선	남양우	남한우
노재섭	박영규	박용우	배영효	서정광	성길현	신권수
신길우	신원근	심영근	양세욱	오빈영	윤상묵	윤태섭
이정희	이규철	이기원	이상철	이상해	이원조	이재일
이종명	이창운	이태길	이판암	이하창	이해동	이해석
임채균	장승훈	장태연	정근배	정인용	조동일	조용우
주지연	차형훈	최재진	최진용	하태석	한명운	한택희
현영길	홍순영	황동진				

2008

공근혜	곽광진	권오국	김규봉	김기조	김두열	김영철
김윤재	김은기	김찬회	김형빈	박재수	박재현	박재홍
박현신	배문환	변원호	서문용채		손장익	송미경
신용욱	위진호	유재수	윤기로	이기동	이병용	이영남
이용근	이은정	이진규	이창의	이형진	임광식	임성재
임영식	장경득	정전환	정태윤	정홍언	주정현	진명준
최형진	한동훈	한익준	홍승환	황태영		

AMP 66기

2009

김낙찬	김대성	김병희	김봉수	김영부	김재환	김 찬
김형건	김활년	나한홍	노성우	두강현	명선목	박현수
박형택	박홍숙	백상호	백홍중	손영준	신우호	심성태
엄선진	유수훈	유영곤	윤종립	이기호	이승룡	이용완
이재선	이준희	이희연	정근기	정상훈	제양현	조호제
최승석	최영균	최현기	하우훈	한인권	허 정	황영식

AMP 67기

2010

강승규	구안숙	김상우	김수연	김영호	김진태	김천주
박동준	박홍서	변희경	송영천	안우진	원도희	윤득중
윤석환	이계태	이동식	이동준	이승훈	이원근	이주동
이철균	임종현	장두실	정용호	최영무		

AMP 70기

연세가족기부자

(고)임익순	강동호	강성모	강세기	강용성	강재성
구학서	김경태	김구식	김동기	김동원	김동준
김상열	김영환	김인준	김정동	김종운	김필순
문병록	민병일	박락원	박미자	박선주	박성래
박인호	박진배	박태관	박희주	송재용	신숙정
심구영	심충섭	연강흠	오일환	유재국	윤왕호
이근호	이동운	이동호	이병우	이상우	이성문
이용재	이재민	이재우	이재홍	이종철	이호근
임부자	임 일	임진영	장덕상	장 명	장은미
장현수	전재훈	정광윤	정구현	정기현	정기환
정영호	정종진	조성우	최낙주	최선미	최응열
한당욱	한인철	한재혁	황의준	황재원	

기업

(재)대정장학회	(주)남극냉동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주)시몬느	(주)시호비전	(주)신세계이마트부문
(주)아모레퍼시픽	(주)에스비에스아이	
(주)연합인포맥스	(주)이랜드월드	(주)코스닥라인
(주)크라운제과	(주)테일러벨슨소프레스코리아	
(주)포스코경영연구소		
(주)하이드로젠파워 에너지사업부		
GS건설	HM디지털	ING 생명보험(주)
LG전자	SK텔레콤(주)	교보문고
국민은행	글로벌하우스	금호아시아나그룹
노키아	대신제과(주)	대우증권
대일건설	동궁물산(주)	동아알루미늄
동양나이론(주)	동양매닉스(주)	동양종합금융증권
동인스포츠	디시아이에프코리아	
롯데쇼핑(주)	미래에셋증권	부림상호신용
북창동LA순두부	삼릉물산	삼성전자
서울세라믹스	선등문화장학재단	
신한은행	앤더슨컨설팅	연경장학회
영신엠텍	엘로우캡	우리은행
유니레버코리아	일진전기(주)	장금상선(주)
(주)동우밸브콘트롤	(주)드림텍	(주)코리아홈쇼핑
패션그룹형지(주)	한국도자기	한국산업은행
한일재단	현대증권	효성바스프

단체

경영전문대학원 MBA 동창회
 경영전문대학원 석사동창회
 경영전문대학원 여성동창회
 경영전문대학원 총동창회
 경영전문대학원
 고위경제 12기
 고위경제 13기
 고위경제 7기
 김구재단
 백양로 포럼
 상경대학동창회
 언론홍보대학원 최고위과정 10기
 임상심리학회
 최고경영자과정 골프회
 최고경영자과정 동창회
 한국능률협회

이 기부자 명단은 지난 20년간 경영대 기금에 기여하신 개인, 단체 및 기업의 기부 현황을 입학년도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기부금 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기초한 것이며, 이름 불명확 등의 사유로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경우, 경영대학 대외협력실 (02-2123-5445 / 6254, ysb-edo@yonsei.ac.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임교수

마케팅

마케팅 전공

김동훈	Ph.D. (Columbia University, 1989)
김영찬	Ph.D. (University of Michigan, 1995)
박세범	Ph.D. (Northwestern University, 2004)
박흥수	Ph.D. (University of Pittsburgh, 1988)
오세조	Ph.D. (University of Cincinnati, 1987)
이경미	Ph.D.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2005)
이동진	Ph.D. (Virginia Tech., 1996)
이문규	Ph.D.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91)
이완수	D.B.A. (University of Tennessee, 1981)
장대련	D.B.A. (Harvard University, 1986)
최정혜	Ph.D.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0)

국제경영 전공

곽주영	Ph.D. (MIT, 2008)
박영렬	Ph.D.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93)
박용석	Ph.D.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2000)
최순규	Ph.D.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97)

매니지먼트

권구혁	Ph.D.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91)
노현탁	Ph.D.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2010)
박경민	Ph.D. (INSEAD, 2005)
박헌준	Ph.D. (The Ohio State University, 1990)
신동엽	Ph.D. (Yale University, 1996)
양혁승	Ph.D. (University of Minnesota, 1998)
오홍석	Ph.D.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2000)
윤세준	Ph.D.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88)
이지만	Ph.D. (London School of Economics, 1998)
이호욱	Ph.D. (Texas A&M University, 2002)
장은미	Ph.D. (University of Maryland, 1993)
정동일	Ph.D.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inghamton, 1997)
정승화	Ph.D.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3)

재무

재무 전공

구본일	Ph.D. (Columbia University, 1988)
김동훈	Ph.D. (Stanford University, 2005)
김인준	Ph.D. (Columbia University, 1985)
박상용	Ph.D. (New York University, 1984)
벤티우	Ph.D. (University of Amsterdam, 2010)
신진영	Ph.D. (Carnegie Mellon University, 1993)
신현한	Ph.D. (The Ohio State University, 1995)
엄영호	Ph.D. (New York University, 1996)
연강흠	Ph.D.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0)
임웅기	Ph.D.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79)
정종락	Ph.D. (University of Pittsburgh, 1982)
한재훈	Ph.D. (Columbia University, 2003)

보험 전공

김정동	Ph.D.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4)
-----	--

회계

김지홍	Ph.D.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87)
문두철	Ph.D. (Baruch Colleg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2001)
손성규	Ph.D. (Northwestern University, 1992)
윤대희	Ph.D. (Yale University, 2008)
이경태	Ph.D.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1992)
이호영	Ph.D. (University of Oregon, 2000)
장진호	D.B.A. (Harvard University, 1999)
주인기	Ph.D. (New York University, 1986)
최원욱	Ph.D. (Columbia University, 1993)

O.D.I

오퍼레이션 전공

김태현	Ph.D. (Indiana University, 1986)
민순홍	Ph.D. (The University of Tennessee, 2001)
배성주	Ph.D. (MIT, 2009)
최선미	Ph.D. (Cornell University, 2001)
허대식	Ph.D. (Indiana University, 2001)

정보시스템 전공

김준석	D.B.A. (Indiana University, 1982)
서길수	Ph.D. (Indiana University, 1989)
손재열	Ph.D.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2001)
오원석	Ph.D. (New York University, 2000)
이호근	Ph.D.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93)
임건신	Ph.D.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2000)
임 일	Ph.D.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2001)

경영과학 전공

경규학	Ph.D. (Oec HSG St. Gallen, 1979)
김성문	Ph.D. (University of Michigan, 2003)
김진우	Ph.D. (Carnegie Mellon University, 1993)
김학진	Ph.D. (Carnegie Mellon University, 2001)
박선주	Ph.D. (University of Michigan, 1999)
신영수	Ph.D. (Northwestern University, 1978)
정예림	Ph.D. (University of Paris1, 2010)

객원 및 연구교수

강영기	Ph.D. (Yonsei University, 1998)
김동원	Ph.D. (Korea University, 1987)
노병탁	Ph.D. (Michigan State University, 1976)
양정미	Ph.D. (Brown University, 1987)
염지인	Ph.D. (Yonsei University, 2004)
이수진	Ph.D. (Columbia University, 2010)
장 명	Ph.D. (Yonsei University, 1995)
장정훈	MBA (University of Michigan, 1978)

‘사랑한다 이권세 경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YONSEI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Tel: +82-2-2123-5445 Fax: +82-2-2123-8639

Homepage: <http://ysb.ysb.ac.kr>